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한 심포지움 결과보고서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 방향

빈

면

머 리 말

최근 한우고기의 소비 증가에 따라 산지 소값이 높게 유지되고, 소 사육 두수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1980년대 초반에 겪었던 「산지 소값 파동」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지난 8월초 소값 안정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를 계기로 당연구원은 현재의 한우산업 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한우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관련 각 분야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5일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움에는 「쇠고기 협상 결과 및 한우산업 정책 방향」,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대책」, 「육우 생산의 경제구조와 전망」, 「한우 사육 동향과 수급 전망 분석」 등 네 편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공청회에는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지역의 축협 조합장, 한우 사육농가, 도 축산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토론자로서는 학계, 관제, 생산자 단체, 양축가 등 6명이 참가하여 최근 소값 상승에 대한 원인과 향후 수급 전망 및 지속적인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관하여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네 편의 주제 발표자료뿐만 아니라 토론자들의 토의 내용과 참석자들의 질의 및 주제 발표자들의 답변 내용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1993. 10

院 長 鄭 英 一

자료 정리 및 편집

정
김
이

민
동
영

국
하
희

목 차

주제 발표

쇠고기 협상 결과 및 한우산업 정책 방향	김동태	1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대책	유철호	17
육용우 생산의 경제구조와 전망	조석진	33
한우 사육 동향과 수급 전망 분석	문기한	47

토의 내용	65
-------------	----

원장 개회사	127
--------------	-----

장관 격려사	129
--------------	-----

참석자 명단	133
--------------	-----

빈

면

주제 발표

쇠고기 협상 결과 및 한우산업 정책 방향

김동태(농림수산부 축산국장)

빈 면

주제 발표

쇠고기 협상 결과 및 한우산업 정책 방향

김동태(농림수산부 축산국장)

1. 쇠고기 협상 경과

가. 쇠고기 협상 추진

○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1992년 6월 이후 5차 협상 끝에 1993.6.26 일한·미간 타결

○ 쇠고기 수출국의 주장

－ 쇠고기패널의 결정은 수입자유화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1997년까지 자유화해야 함.

• 쇠고기는 UR의 관세화 대상품목도 아님

－ 협상 대상기간은 1993년부터 1997년 6월까지 4년 6개월로 하고, 이후는 완전개방해야 함

• 1993년 이후 쿼타는 그간의 소비 실적과 개방 이후의 예상수요를 감안하여 대폭 확대하고

• 업계간 자율거래(SBS) 물량, 참여자 및 자율성을 확대하여 「개방 연습」을 해보아야 함

○ 우리측 입장

– 한우산업은 농가경제에 위낙 중요하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개방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필요

• 한국의 약속은 GATT 규정일치이며, 완전 자유화가 아님.

– 수입 쿼터량은 국내 소값 폭락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 필요 역설

나. 협상 타결 내용

○ 협상대상기간을 1993~95까지 3년간으로 관철

○ 수입 쿼터량 : ('93) 99천톤→('94) 106→('95) 113<매년 7천톤씩 증가>
(SBS용) (9.9) (21.2) (33.9)<SBS용은 기본쿼터에 포함>

– 1995 쿼터량 113천톤은 1991, 1992 실제 수입량 125천톤, 132천톤보다 낮은 수준임

○ SBS 참여자

– (현재) 축협, 한농, 관광호텔용품센터

– (협상결과) 기존 3사외에 육가공협회, 음식점협회, 한국슈퍼체인협회 추가

※ SBS용은 수입가격(CIF+관세)과 국내 도매시장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한 일정 부과금을 축진기금에 납입 의무화

2. 한우산업의 여건

가. 현 황

① 한우 사육 동향

○ 사육두수 : 1990년부터 증가세 지속

- 1985년도에 2,553천두로서 사상 최고두수를 형성한 이후 1989년도에 1,536천두까지 감소했다가 1993년 6월 현재는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2,215천두임.

표 1 한육우 사육 동향

	1980	1985(A)	1990(B)	1992	1993.6(C)	대 비	
						C/A	C/B
○ 한육우두수	천두 1,361	2,553	1,622	2,019	2,215	% △13.2	36.6
(총사육두수)	(1,541)	(2,943)	(2,126)	(2,527)	(2,751)	△ 6.5	29.4
-가임암소	768	1,200	761	965	1,057	△11.9	38.9
(가임암소비율)	(56%)	(47)	(47)	(48)	(48)	(2.1)	(2.1)

㉔ 연령별 사육 동향

○ 1세 미만의 소가 전년 동기 대비 15.2%가 증가하여 1994년 출하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가임암소도 1993년 6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1,057천두로서 번식의욕이 고조되어 향후 사육두수의 큰폭 증가를 시사하고 있음

표 2 연령별 사육 동향

	1991.12	1992.6 (A)	1992.12 (B)	1993.3	1993.6 (C)	대 비	
						C/A	C/B
○ 총사육두수	천두 1,773	1,913	2,019	2,007	2,215	% 15.8	9.7
-1세 미만	724	797	830	793	918	15.2	10.6
-가임암소	855	919	965	996	1,057	15.0	9.5

㉕ 쇠고기 소비 동향

○ 1989년 이후 근로자 임금의 급격한 상승, 과소비풍조의 영향 등으로 쇠고기 소비량이 급증하다가 1992년 하반기부터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

- 금년 상반기의 전년 대비 총소비량은 4.6%, 수입육은 29.3% 감소한 반면 국내산은 오히려 28.4% 증가함

- 자급도는 57.7% 수준으로 '91,'92년 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 년도별 쇠고기 소비 동향

	1989	1990	1991	1992	1993 상반기
	천톤				
○ 총 소 비 량	143	177	223	227	104.7
- 국내산	90	95	98	100	60.4
- 수입육	53	82	125	127	44.3
소비증가율(전년대비)	1.3%	23.5	26.0	1.8	△4.6
자 급 율	96.6%	54	44	44	57.7

표 4 '93 상반기 쇠고기 소비 동향

	1992 상반기(A)	1993 상반기(B)	B/A
○ 총 소 비 량	109,693톤	104,690	△4.6
- 국내산	47,050	60,426	28.4
- 수입육	62,643	44,264	△29.3
자 급 도	42.9%	57.7	

나. 소값 동향 및 주기 변동 특징

① 소값 동향

○ 산지 소값은 작년 9월 17일 2,526천원/400Kg을 정점으로 금년 3월 초까지 큰폭으로 하락, 3월 4일(1,816)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현재는 2,350천원대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음

 - 3월 이후 큰소 가격이 송아지가격 보다 더 많이 상승함(큰수소 24.9%, 수송아지 18.5)

표 5 소값 동향

	1992.12 (A)	1993.3 (B)	1993.5	1993.7	1993.8.21 (C)	C/A	C/B
	천원					%	
큰 수 소	2,130	1,882	2,115	2,234	2,351	10.4	24.9
수송아지	1,378	1,236	1,365	1,404	1,463	6.2	18.5

- 한우고기와 젓소고기등과의 가격차별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도매시장 가격차 : (3월)1,108/Kg→(7월) 2,478<24% 증>
 - 정부의 한우고기 시장 차별화시책이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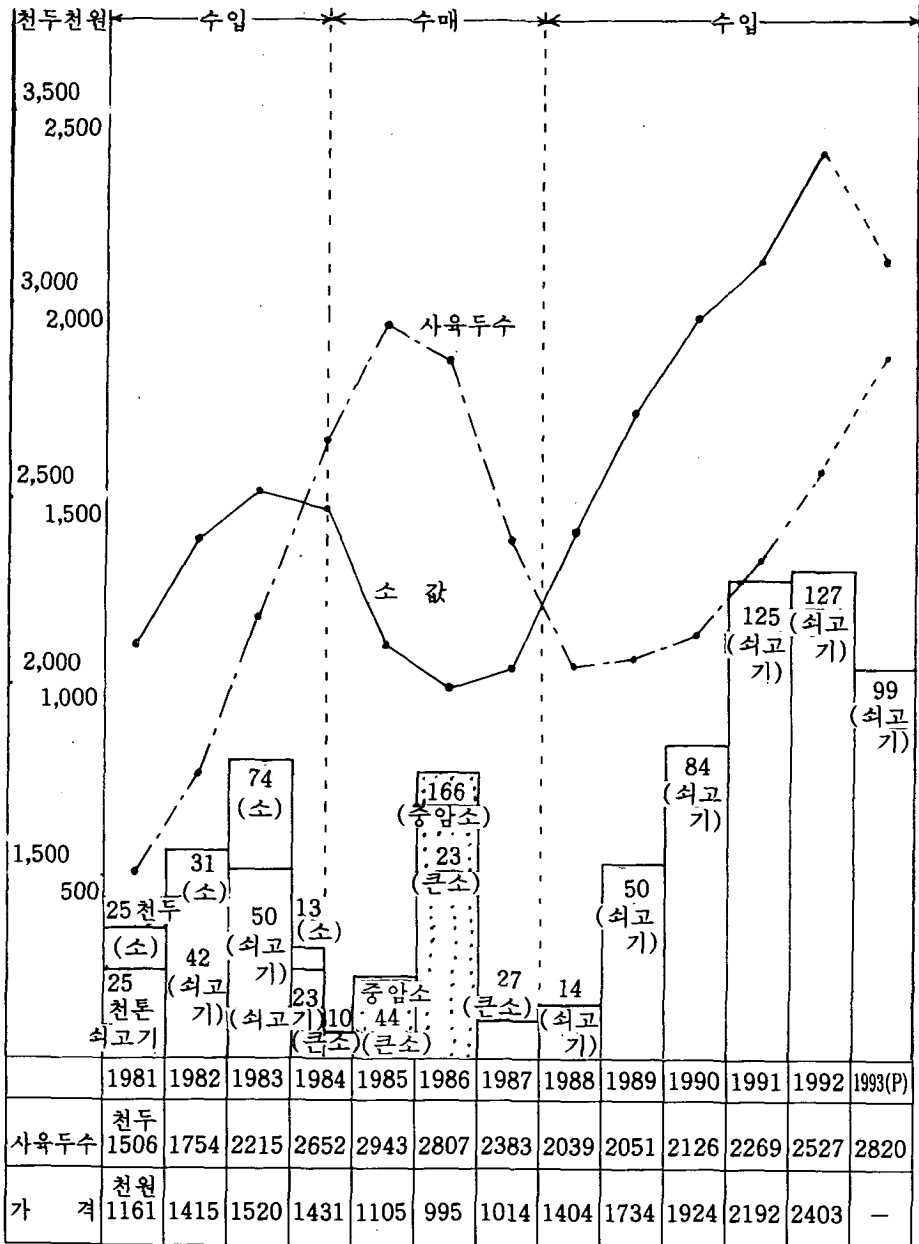
㉔ 소값 주기의 특징

- 소값 주기 변동기간은 과거 7년에서 9~10년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상승 6년, 하락 3~4년)
- 가격상승→사육두수 증가→가격하락→사육두수 감소→가격상승의 반복
- 가격상승시기에는 입식증가, 출하지연 및 출하체중 증가, 큰소와 송아지와와 가격차가 감소하고, 가격하락시기에는 그 반대현상이 나타남
 - 소값 상승시기('88~'92)⇒(송아지가격/큰소가격) : 46%→70%
 - 소값 하락시기('83~'86)⇒(송아지가격/큰소가격) : 60%→37%
- 소 사육두수는 소값 주기변동에 의거 산지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더라도 최고가격을 형성한후 2년간은 큰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음
- 산지소값과 사육두수와의 관계는 2년의 시차가 발생
 - '84년부터 소값이 하락하였으나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여 2년차인 '86년부터 감소시작
 - 소값이 '87년부터 상승하였으나 사육두수는 계속 감소하여 2년차인 '89년부터 증가 시작
 - 현재의 소값은 '87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작년 9월이후 하락 국면돌입 그러나 사육두수 특히 가임암소는 큰 폭으로 증가
- 과거 '84~'86년까지 소값하락 분석
- '80~'83년까지 소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82~'85년까지 소값하락에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

㉕ 현재의 소값 주기 분석

- 소값 주기 변동기간은 과거 7년에서 9~10년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상승 6년, 하락 3~4년)

표 6 소 사육두수와 소값과의 관계



○ 198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산지 소값은 1992년 9월 17일 2,526천원을 정점으로 하락한 반면 소 사육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소값 주기변동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큰소가격 대비 송아지가격 비율도 1991~92년을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음

※ 산지 소값은 1993년 3월 4일 1,816천원에서 다시 반등하여 현재는 2,350천원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한우전문점 육성 등에 대한 한우고기 소비 증가, 추석 대비 사전 물량 확보, 기대심리에 의한 출하지연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됨.

표 7 년도별 큰소와 송아지와의 가격차 추이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상
큰 소(A)	천원/kg 1500	1431	1105	995	1014	1404	1734	1924	2192	2403	2048
송아지(B)	천원 909	651	444	370	464	652	1022	1217	1540	1677	1347
(B/A)	(60%)	(45)	(40)	(37)	(46)	(46)	(59)	(63)	(70)	(70)	(66)
A-B	611	780	661	625	550	752	712	707	652	726	701

다. 현재 한우산업이 처해 있는 문제점

○ 사육두수의 지속증가

－ 소값 주기 변동사이클상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소 사육두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향후 소값 폭락이 우려됨

※ 산지 소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홍수출하로 산지 소값 폭락 유발

○ 국내 소값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

－ 현재의 한우가격은 국제가격의 3~4배(생축 400kg당 미국 : 625천원, 호주 : 523원)

○ 사육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기대난

－ 1~4두 사육농가가 전체 한우 사육농가의 78%(93. 6현재)

- 소값에 따라 사육두수 증감으로 소값 안정에 저해
- 조사료 자원개발 부족에 따른 농후사료 위주 사육
 - 사료비 부담문제뿐만 아니라 고급육 생산에 어려움
 -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 여부에 따라 생산비 절감 실현이 좌우됨
- 한우산업의 주변여건이 어려움
 - 산지 소값의 등락에 관계없이 일정 킬로의 쇠고기 수입 불기피
 - SBS용(업계간 자율거래방식) 쇠고기 수입량 증대
 - '93 : 9.9천톤 → '94 : 21.2 → '95 : 33.9
- 등급제 및 부위별 차등가격제 미정착
 - 최종유통단계의 상도의 미정착 및 부위별 차등가격제 미흡으로 소비자불신 팽배
 - 적소 및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성행에 따른 소비자 불신으로 속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수입쇠고기 선호경향 초래
- 소비자의 양질 쇠고기 식별능력 미흡
 - 냉장, 냉동쇠고기의 동일가격 형성
- 개량체제 및 신기술 개발체제 미흡
 - 각 개량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 미진
- 고급육 생산의 저조
 - 육류 등급제의 미정착으로 중량 위주로 거래
 - '93. 6월 현재 도체등급결과 : 1등급은 13% 수준에 불과함(A-1 등급은 0.5%)

3. 한우에 대한 정책 방향

가. 한우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

< 기본 방향 >

- 한우 사육적지를 최대한 확보, 경쟁력을 갖춘 한우 사육단지 조성
- 유능하고 모범이 되는 농가를 선발, 가족노동 중심의 한우 사육선도농가로 육성
- 한우농가의 협업화 촉진
- 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사육기반 확보 및 안정적 농가소득 도모
- 쇠고기 유통체계 개선 및 한우 시장 차별화 추진
- 한우 개량 및 사육기술 개발과 실용화 촉진
- 조사료 생산 및 국내 부존자원 이용 증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 한우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경쟁력 제고대책 강구
- 생산자조직을 통한 종합지원체제 도입



- 개방의 확대에도 200~250만두 수준의 한우 사육기반 유지

나. 세부 추진시책

한우 종합대책의 착실한 추진

① 가격 안정대책

- 가격 안정대제도의 운영 내실화
 - 산지 소값이 하한가격을 밑돌 경우 무제한 구매
 - 1993 구매비축자금 1,500억원 확보
 - '93가격안정대(400kg 수소기준)⇒상한가격 : 1,900천원, 하한가격 : 1,500

※ 금년도에 가격안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축산법 개정, 6.11)

- 송아지 생산안정제도의 도입

- 국내산 소가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이 점차 인하 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를 막기 위함

- 소 생산비중 가장 비중이 큰(50% 내외) 송아지가격이 보장가격 이하로 하락시 그 차액보전

※ 재 시안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및 입법예고중

○ 수입쇠고기 방출량의 탄력적 조절

- 수입쇠고기 방출은 국내 소값 및 쇠고기 수급 동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2. 구조개선 대책

(가) 가족노동력 중심의 한우목장 조성

○ 타 농가를 선도할 기술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선발, 집중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업농가의 모델 및 신기술 전파자로 육성

-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다) 한우단지 조성

○ 한우사육에 적합한 산지, 유희지에 생산기반을 완비토록 하여 개방이후에도 경쟁력을 가진 한우 사육기지로 조성

- 생산자재 구입, 생산물 판매, 폐수처리 등 공동시설에 의한 생산비 절감

○ 지원기준을 제시하되, 지원규모는 제한하지 않은 종합지원제 도입

- 진입로, 전력 및 용수시설 등 신규 기반시설 사업비는 70%까지 보조(지방비 20% 별도)

○ 가족노동규모로 협업화 및 공동투자 유도

(다) 영세 한우농가의 협업조직 육성

○ 영세 부업농가의 협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영농조합법인, 비육회 등 한우사육 협업체 결성 지원

- 공동사육·장비,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판매장개설 등 생산에서 유

통까지 협업조직의 희망 사업에 대하여 지원

(라) 조사료 생산 및 이용증대 지원

○ 조사료 증산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 및 초지 보완사업 강화

－ 종자대, 비료대, 사이로건설비 등에 대한 보조지원 확대

－ 겨울철 유휴농지에 사료작물 재배방안 검토

○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조성시 기계의 공동이용으로 개별농가의 기계구입부담 및 인력부족문제 해소

○ 벼짚의 사료자원화 적극 지원

－ 사료용 벼짚 수거기(곤포기) 및 벼짚 암모니아처리 지원

(마) 축산공해 방지대책

○ 축산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 법규제 대상농가 : 정화시설, 퇴비처리장비 등 지원

－ 기타 : 공동저장탱크, 분뇨운반장비 등 공동시설 지원

○ 가축분뇨의 자원화

－ 축분발효시설 지원에 의한 비료화 및 기술지원

③ 유통개선대책

(가) 유통시설의 정비 및 확충

○ 가축시장 통폐합

－ 거래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시장의 과감한 통폐합 추진

• (92) 258개소→(97) 128개소

－ 존치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시장으로 개편하고 양축가 편익 시설 확충으로 이용성 제고

○ 도축장 시설현대화

－ 한우고기 냉장유통을 위해서는 위생적인 도축이 절실

－ 단순 도축기능에 가공·판매·보관기능을 병합, 산지 식육유통센타화

• ('92) 3→('97) 65개소

○도매시장 확충

－ 산지 공판장 확대 설치

(’92) 3→(’97) 11

－ 소비지에는 지육(부분육) 도매시장 및 한우고기 집배센타 설치

(나) 한우고기 시장차별화 추진

○ 한우전문판매점 지정 육성

－ 생산자단체, 대형백화점, 한우농가협업체등을 통한 한우판매망 구축

－ 육성계획 : (’93) 114개소(300억원)→(’94~’97) 420개소(1,050억원)

• 한우 생산량의 70%수준을 한우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소비자에 공급

－ 한우전문판매점에 대한 한우 공급을 축협이 전담

• ’93 한우유통활성화자금 100억원 지원

○ 육류도체등급제 및 부위별 차등가격제 조기 정착

－ 육류도체등급제의 점진적 확대 실시

표 8 지역별 육류도체등급제 실시 계획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4 단 계
실시지역		서 울	서울+지방반입	서울+지방반입 부산+지방반입	전국도매시장
실시시기	당초	축공:’92.7.1 민간:’92.7.1	’93.7.1	’95.1.1	’96.1.1
	조정	축공:’92.7.1 민간:’93.2.19	’93.7.1	’94.7.1	’95.1.1

－ 도매단계에서의 등급별 거래, 소매단계에서의 부위별차등가격제의 조기정착으로 공정거래 유도

○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 근절

－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 부정유통 고발시 포상금 지급(’94예산액: 5천만원)

－ 축협직원을 모니터로 지정 운영

④ 고품질 생산을 위한 개량사업 활성화 및 기술개발 보급

<한우개량목표>

개 량 형 질	1992		1998		2001
○ 출 하 체 중 : (18개월령 수컷)	488kg	⇒	520	⇒	550
○ 일 당 증 체 량 :	0.90kg	⇒	0.95	⇒	1.00
○ 분 만 간 격 :	15~16개월	⇒	14~15	⇒	12~13
○ 육 질 :	보통육	⇒	고급육	⇒	고급육

(가) 한우 개량체제 정비

- 국립종축원을 가축 개량 총괄기관으로 지정 운영
 - 개량에 관한 평가·분석·조정·통제 및 국내의 개량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으로 효율적인 개량 추진
- 한우 개량단지의 내실적 운영
 - 우량축 및 고급육 생산 전진기지로 정착 유도

(나) 고급육 생산기술의 조기 확산

- 1등급 출하농가에 포상금지급, 고급육생산 분위기의 조기 확산 도모
 - A-1 : 20만원, B-1 : 10만원

(다) 산·학협동체제 구축 및 기술 개발 강화

- 대학 등 연구기관과 한우단지·목장, 조합법인, 한우 개량단지 등 한우 사육농가와 연계, 실질적인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실용화 촉진
- 한우 전문연구소 설립 지원
 - 국립종축원 남원지원을 한우 연구소로 개편하는 방안 강구

- 수정란이식, 쌍태아 생산등 유전공학의 첨단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라) 기술개발 창안제 실시

- 농가 또는 개인이 개발, 보유하고 있는 한우 관련 특수기술을 공모, 심사후 이를 농가에 확산
 - 채택된 기술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금 지급

4. 맺는말

○ 지금 우리 농업은 국제 교역의 자유화 추세 속에서 개방화라는 거센 파도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우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 이와 같은 여건 변화 속에서 통상여건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정부에 전가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 현재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사육두수의 증가는 그것이 1984/85년과 같은 파동을 다시 재현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을뿐만 아니라 쇠고기 수출국들을 자극하여 수입자유화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 한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동시에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여 가격 등락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정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양축농민 각자가 사육두수를 조절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품질을 고급화하여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양축가 단체를 비롯한 축산 관련인들의 상호 협조와 자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 농민, 생산자 단체는 물론 소비자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축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 부국축산의 길은 앞당겨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제 발표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대책

유철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실장)

빈 면

주제 발표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대책

유철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실장)

1. 서 론

1980년대 후반부터 한우 사육두수, 가임암수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최근에는 사육두수가 크게 늘면서도 산지가격은 강세를 유지,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1980년대 초중반에 겪었던 산지 소가격 파동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높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8월초 산지 소가격 안정을 위하여 ① 고급육 중심 수입쇠고기 방출량 확대, 포장육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매점 마진율 및 포장단위 상향 조정과 외상기간 연장, 판매처 제한 완화와 공급량 제한을 철폐키로 하였으며, ② 산지 소 출하 물량 확대를 유도하며, ③ 가임암소 감축을 위한 암소 출하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등 하반기 소값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급격한 산지 소값 상승세는 진정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언제 과거와 같은 「소값 파동」의 재연 가능성의 검토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차적인 수입 확대와 개방에 대비하여,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의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

이미 농림수산부에서 1990년 6월 발표한 「축산장기발전대책」, 「우르과 이 라운드」농산물 협상 관련 대비 축산 관련 대책, 1992년 12월의 「한우 종합대책」등에서 나타났듯이 축종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우부문과 관련 생산, 쇠고기 수급, 가격 변동 등 현황 및 추세의 흐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저해가 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추세

가. 생산액

○ 1991년 한우(육우 포함) 생산액은 116백억원(젖소, 156억원)으로 축산물 생산액(440백억원, 농산물 생산액 1,741백억원의 25퍼센트)중 양돈(136백억원) 다음 큰 비중.

－ 1983~85년간 한우 생산액이 축산물중 가장 높았고, 축산물 생산액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당시 산지 「소값 파동」이후 가격침체가 장기화, 사육두수가 감소로 생산액은 크게 감소.

－ 그러나 1988년 이후 산지가격의 상승과 사육두수 증가로 1991년 한우 생산액은 1988년(61백억원) 대비 거의 2배가 되었음.

나. 쇠고기 수급

(1) 1985~92년간 쇠고기 총소비량은 116천톤에서 226천톤으로 증가(년 10%씩 증가).

- 1985~87년간은 쇠고기 자급기간이나 ① 소값 장기침체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 ② 쇠고기 수출국들의 쇠고기 수입재개 압력 ③ 88올림픽 수요충당을 위하여 1988년 하반기부터 쇠고기 수입 재개

○ 국내산 공급량(1988~92)은 1988년 127천톤, 1989~92년간은 90~100천톤으로 완만하게 증가

○ 특히 1989~92년간 쇠고기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였고 경기상승, 물가안정차원에서 국내산 쇠고기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입쇠고기를 대량 방출결과 국내산보다 싼 수입쇠고기 소비량은 급증.

- 기간중 소비증가분은 거의 수입육이었음.

표 1 쇠고기 수급, 1988~92

	1988	1989	1990	1991	1992
총소비량(천톤)	142	143	177	223	227
국내산(천톤)	132	90	95	99	100
(국내산, %)	(93.4)	(62.8)	(53.6)	(44.1)	(43.9)

자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1993.

(2) 1990~92년간 수입쿼터량은 1990년 58천톤에서 매년 4천톤씩 증량키로 되어있었으나 실제수입량은 이를 훨씬 초과.

○ 1993~95년간 쿼터량은 1993년 99천톤을 기준 물량으로 년 7%씩 늘려나가기로 함.

(3) 1991년 국내산 쇠고기 99천톤중 한육우쇠고기 73%, 젖소고기 27%였음.

다. 사육두수, 호수, 규모

(1) 1993년 6월 조사에 의하면 한우 사육두수 2,215천두, 사육호수 581천호(1992년 총농가호수 1,640천호)로 축산농가중 한우 사육농가가 가장 많음.

- 1985년 이후 1993년 6월까지 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변동을 보면
 - 사육두수는 최저두수 해인 1989년 12월 1,536천두 대비 44퍼센트 증가하였으나,
 - 사육호수는 최고해인 1985년 12월 1,047천호의 55퍼센트 수준으로 감소
- (2) 1985~93년 6월간 평균 사육두수는 2.4두에서 3.8두로 증가 하였음.
- 같은 기간중 1~2두 사육농가 비율은 74퍼센트에서 54퍼센트로 감소하였고, 여타 규모에 비하여 많은 농가가 소사육을 포기하였으나 아직도 1~2두 사육호수 비중이 높다.

표 2 총사육두수중 10두 이상 규모사육농가 및 사육두수 비율, 1985~92

	사육호수 (천호)	10두 이상 사육호수비율 (%)	사육두수 (천호)	10두 이상규모 사육마리수비율 (%)
1985	1,048	2.2	2,553	17.5
1990	620	3.8	1,622	27.9
1992	585	6.3	2,019	32.8

자료: 농림수산부, 「가축통계조사」, 해당년도.

○ 「소값 파동」 이후, 소규모 사육농가는 많이 탈락하였으나, 소값 장기 침체기간 중에도, 다수사육 농가수 및 다두사육규모 사육두수는 증가, 또는 점차 큰 비율을 차지.

(3) 사육두수(총두수, 2세 이상 큰 암소두수) 증가 추세를 보면 총두수 및 큰암소수 증가율이 근래와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즉, 사육두수 증가가 가속화 추세에 있음.

(4) 총두수 및 가임암소 사육두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수입육 수입량 및 방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 ① 한우쇠고기 선호로 고가 유지
- ② 한우쇠고기와 수입쇠고기 국내 유통분리정책으로 둔갑 방지
- ③ 한우쇠고기 소비홍보 효과 등을 들 수 있음.

표 3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년증가율, 1989~93. 6

	1989~90	1990~91	1992~92	1992. 6~93. 6
총두수(%)	5.6	9.3	13.8	15.8
한우큰암소(%)	2.0	11.7	13.2	15.2

자료: 농림수산부, 「가축통계조사결과」, 해당년도.

라. 소값 및 쇠고기 가격

㉠ 산지가격 (큰수소 400kg)

(가) 산지 소값은 1987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음

－ (1983~84)산지 소값 파동을 전후하여 최고시세는 1,570천원 (1983.2.1) 최저가격은 920천원(1987.2)이었으며, 「소값 파동」 이후 장기 소값 침체기 가격은 1백만원 수준.

－ 소값 장기침체결과 소사육두수 감소로 1988년도 소가격은 년중 상승하였음.

－ 그 이후 월평균가격과 상승시점을 보면:

1,825천원 (1989.1), 2,050천원 (1990.5)
 2,201천원 (1991.4), 2,429천원 (1992.4)
 2,509천원 (1992.8)

－ 이후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 1,882천원(1993.3)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 8월초 2,344천원을 상회.

(나) 계절 변동 추세

－ 1985년 년중 소값이 하락했던 해(1983~84년 소값 파동)와 1988년 년중 소값이 상승했던 두 해를 제외하면 대체로 소값은 쇠고기 성수기인 연말년시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하절기에 약세로 반전하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1992년에는 8,9월 이후부터 1993년 3월 하락

-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수입육 방출량 조절로 제철 등락폭 조절이 가능하여짐.

㉔ 도매가격

① 지육경락가격(쇠고기도매가격)은 대체로 산지가격과 같은 추세를 보임.

○ 지육경락가격(서울, 1kg)은 1988~92년간 5,500원~7,634원으로 상승.

② 지육경락가격은 소 품종, 육질 등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가격 차이는 고급육 선호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음.

- 1990년 1월과 1993년 6월의 지육 kg당 평균, 최고, 최저경락가격의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한우 수소가 가장 높고, 이어서 한우 암소, 육우, 젖소의 순을 보임.

표 4 품종별 지육 kg당 가격(서울도매시장)

단위: 원

		한우(암)	한우(수)	젖소	육우(교잡우)
1990. 1	최고	8,100	8,371	7,777	7,329
	최저	600	1,236	600	1,869
	평균	7,061	7,441	6,205	6,610
1993. 6	최고	11,755	11,899	8,150	10,123
	최저	1,500	1,000	500	1,000
	평균	7,607	8,974	5,849	6,569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유통동향」, 해당년월호.

• 최고경락가격의 최고수준은 한우 수소, 최저경락가격의 최저수준은 젖소

• 1990년 1월 한우암소 역시 젖소와 동일하게 최저가격의 최저수준을 보임.

• 한우수소의 평균가격과 육우의 평균가격에는 1990년 1월의 경우 지육 kg당 831원, 1993년 6월의 경우 2,405원의 차이를 보임.

- 한우 수소와 암소간에는 1990년 1월에 380원, 1993년 6월 1367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우 암소와 젖소간에는 1990년 1월의 경우 856원, 1993년 6월 1758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도체등급제 실시 이후 추이

○ 1992년 7월 이후부터 1993년 5월까지 축협공판장 소 도체등급판정 결과를 보면, 총출하두수 34,996두중 등급외를 제외한 등급을 받은 출현두수는 21,061두로서 등급 출현율은 60%.

— 이중 한우가 9,741두(46.3%), 유우가 10,442(49.6%), 육우가 92두(0.4%), 교잡우가 786두(3.7%).

○ 등급별 출현두수를 살펴보면 A1이 40(0.19%)두, A2 308((1.46%)두, A3 340두(1.61%), B1 1,055두(5%), B2 5,310두(25.2%), B3 10,900두(51.8%), C1 257두(1.2%), C2 793두(3.77), C3 2,058두(9.77); 고급육인 1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매우 적음.

— 한우가 높은 육질등급을 받고 있으나 높은 등급을 받는 한우수는 매우 소수임.

㉓ 소매가격

(1) 국내산 쇠고기 소매가격(전국 평균, 500g)은 1988~92년간 4,138~7,085원으로 상승.

(2) 1991년부터 육류가격연동제 폐지(가격자유화)와 부위별 차등가격제 업소 증가, 업소간 가격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

(3) 수입육중 고급육(곡류비육) 쇠고기는 한우쇠고기가격의 60% 수준에서 일반육 포장육은 40~45% 수준 유지.

마. 생산비

(1) 1983~85년간 생산비보다 산지가격이 높았고 「소값 파동」 직후 1986년에는 생산비가 산지가격보다 높았음.

(2) 1987~92년간 연평균 산지가격은 생산비를 상회.

표 5 산지가격, 생산비 및 경영비, 1982~92

단위: 천원/큰 수소 400kg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산지가격	1,415.2	1,520.4	1,430.9	1,105.1	994.8	1,014.4
생 산 비	1,604.2	1,426.9	1,301.7	1,157.6	1,020.5	1,005.6
경 영 비	1,331.0	1,282.8	1,160.7	1,009.7	870.3	836.4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산지가격	1,404.4	1,734.0	1,924.4	2,402.0	2,402.0	
생 산 비	1,136.1	1,360.6	1,768.0	2,066.2	2,203.3	
경 영 비	809.2	992.1	1,328.9	1,583.6	1,703.0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해당년도.

축협중앙회,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 해당년도.

(3) 1992년 생산비 구성을 보면 송아지 구입비가 53%, 사료비가 21%를 차지.

- 송아지가격을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안정에 필수적.
- 장기적 생산비 인하를 위해서는 송아지가 싼값에 공급되어야 함을 시사.

(4) 쇠고기 국제가격은 512천어원/두로 한우가격의 1/4 정도

- 고급냉장육의 국내도매시장 도착가격은 833천원/두임.

바. 「소값 파동」 당시와 비교

(1) 1993년 6월 총사육두수 및 한우 가임암소두수는 소 파동 당시 수준에 와 있음.

(2) 소값 파동 당시보다 1989~92년간(산지가격-생산비) 차이는 보다 안정적임.

- 큰 수소가격과 수송아지가격 차이는 소값 파동 전후나 1989~92년

610~760만원 수준을 유지

(3) 1983~86년간 한(육)우 사육두수는 613천두, 생산량은 66천톤에서 151천톤으로 2,3배 증가

－ 당시 생축 수입도 급격한 증식에 기여(1981~84년간 육우 143천두 수입)

표 6 1983~84년 「소값 파동」시와 비교, 1983~93. 6

	1983	1984	1985	1993. 6
한우사육가구수 (천호)	971	1,037	1,048	581
총소비량(천톤)	115	107	120	226 (1992년)
국내산(천톤)	66	90	116	144 (1992년)
(국내산, %)	(57.2)	(84.5)	(96.1)	(43.9)
총사육두수(천두)	2,215	2,652	2,943	2,751
한 우	1,940	2,318	2,553	2,215
젖 소	275	334	390	536
(큰암소 한우)	(870)	(999)	(1,047)	(959)
산지가격(천원)				
큰수소, 400kg	1520	1,431	1,105	2,183
수송아지	909	651	443	
생산비(천원)	1,427	1,302	1,158	1,420
산지가격과 생산비 차이(천원)	94	129	-53	2,203 188
전년대비증가율				
총두수(%)	27.2	19.5	10.2	15.8 (1992.6-)
한우큰암소(%)	25.4	14.8	4.8	15.3 (1992.6-)

1) 년말두수, 년평균가격 등 기준

2) 한우 최고두수 도달시기는 1985.6월 조사결과 2,654천두로 당시 젖 소 합계두수는 3,062천두.

자료: 농림수산부, 「가축통계조사결과」, 해당년도.

축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해당년도.

축협중앙회, 「축산물생산비 조사보고」, 해당년도.

(4) 1989~92년간 생산량 증가는 산지가격이 생산비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데도 90천톤에서 100천톤 미만에 머물러 있음. 이는 수입재개 이후 수입육 수입 증대와 개방 우려에 의하여 소 증식을 조심스럽게 자제하여 온 결과임.

(5) 그러나 수입육 확대 방출에도 불구하고 한우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오래 유지되면서 앞으로도 높은 가격이 오래 지속되리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

— 1989~93년 6월간 총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증가율이 꾸준히 커지고 있음이 이를 반영하고 있음.

(6) 이에 따라 소 사육두수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3월과 같이 소값 폭락사태가 재연될 수 있음.

- 소 사육포기했던 농가 소 입식
- 다두사육농가 규모 확대

3.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 문제점 및 대책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한우쇠고기맛을 더 좋게하고, 보다 값싸게 생산·유통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다른 품종의 쇠고기나 수입쇠고기보다 더 구입케 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 단계(가격 및 품질 경쟁력의 획기적 제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하여 수입자유화 지연이 필요하고, 생산·유통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가. 수입 개방 확대와 자유화

- (1) 쇠고기수출국은 1997. 7월까지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집요하게 요구
- 앞으로 중국의 「가트」(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중국은 ① 「가트」의 다자간협상 또는 우리 나라와 직접 쌍무협상에서 중국산 쇠고기 수입 요구 ② 「구제역」 지역 해제

요구 등으로 국내 쇠고기시장에 접근케 될 것임.

○ 쇠고기 수입 확대와 자유화 일정 논의 등으로 사육심리는 언제나 불안정상태, 장기적 사육규모 확대와 시설자동화 등 생산비 절감의욕 저조.

(2) 쇠고기 수입자유화까지 국내 사육안정 유지선에서 쿼터량 축소 조절과 자유화 일정의 최대 지연

○ 앞으로 협상에서도 1990년 1990~92년간 쿼터량 협상시 합의한대로 「1997년 7월까지 잔존 수입제한을 철폐하거나 「가트」 규정에 일치시켜 나간다」는 합의 내용을 최대한 원용과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이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노력.

나. 산지가격의 불안정과 높은 생산비

(1) 다수의 농가가 영세, 부업적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기회비용이 낮은 유흥자원이 있어 한우 가격상승시 유리한 소득기회가 됨.

○ 그러나 소값 상승시 소 입식과열 -> 공급과잉에 의한 소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가격 변동 빈번.

○ 산지 소값 불안은 가격 경쟁력 제고나 「품질 고급화」 저해 요인 :

○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多頭사육 유도, 구조개선사업 투자와 육질향상을 위하여 장기비육과 사양관리개선 투자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안정적 가격 유지가 필수적임.

(2) 1987년 이후 생산비는 소 산지가격 상승과 거의 같은 폭으로 계속 상승하여 생산비 절감 대책 시급.

○ 송아지가격이 큰 비중 차지

○ 기타 비용(특히 기회비용이 낮은 농가가용 지원)이 과다 계산되는 추세

○ 다두사육 및 시설 자동화 부진

○ 앞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장기비육과 사양관리시설투자 증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 예상.

(3) 소값 상승시 송아지 입식 자제홍보 강화

-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수입육 방출확대로 소값안정시켜 나갈 것임.
- 송아지 입식과열로 야기되는 송아지가격상승은 생산비에 크게 영향
- 양축가피해뿐만 아니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따른 정부의 비용 부담 가중

(4) 산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비 유지수준에서 수입쇠고기 탄력적으로 방출량 조절

- 방출시기, 방출량, 방출가격의 조절
- 한우쇠고기와 대체성 고려(수입 고급육)
- 타육류와의 대체성 고려
-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어야 할 고품질 한우고기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수입쇠고기 방출량 확대는 지양

(5) 多頭사육 유도, 구조개선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가격 경쟁력 점차적 강화

○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생산비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費目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 집중.

- 한우 개량단지 중심 우량송아지 공급을 점진적으로 늘여나가 송아지가격 인하 유도
- 사료비 절감방안
- 시설 자동화 지원
- 기타

(6) 고급육 생산지원으로 품질 경쟁력 강화

- 한우 개량단지 활성화 지원
-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 보급

다. 유통 부조리

(1) 국내산 쇠고기중 일부는 젓소고기이고, 한우 고급육 생산은 부진하나 거래되는 국내산 쇠고기는 모두 「한우고급육」으로 유통되는 실정임.

○ 둔갑 가능성

- 국내산 쇠고기간의 둔갑(한우쇠고기, 젓소쇠고기)
-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육
- 수입육간 둔갑(고급육, 일반육)
- 강제급수와 냉동육 유통에 의한 육질 저하로 소비자 이중피해
- 비위생적 처리유통
- (2) 국내산과 수입육 유통 2원화 정책 유지
- (3) 유통 종사자의 의식 및 쇠고기 취급기술교육의 강화
- (4) 유통 부조리 단속 및 처벌 강화
- 유통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증액하고, 위반자에게는 불이익을 크게 함.
- (5) 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 유통단계 연계강화와 유통부조리 제거
 - 한우 개량단지와 비육농가 연계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 송아지 공급 원활
 - 축협 등 생산자단체, 자생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브랜드화 및 유통 참여 지원
- (6) 수입쇠고기 원산지별 부위별 표시, 국내산 부위별, 등급별 표시 등을 의무화
 - 한우 쇠고기 우수성 홍보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득 수준, 기호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보호
- (7) 소비자 육류 식별능력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필요

- 축산관측사업 및 홍보사업 강화로 양축가 자율사육조절 유도
- 장기적인 수급목표, 자급율 등 제시와 이에 따른 정책수단 제시
-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로 신뢰 구축

빈

면

주제 발표

육용우 생산의 경제구조와 전망

조석진(영남대학교 교수)

빈

면

주제 발표

육용우 생산의 경제구조와 전망

조석진(영남대학교 교수)

1. 과제의 설정

그동안 국내의 소값은 1992년 9월 400kg 수소가격이 250만원에 달했으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육의 대량방출에 따라 1993년 3월에 188만원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3월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8월 현재 240만원대에 달함으로써 사실상 1987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어 온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1세 이상의 가임암소두수가 6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5%가 늘어난 115만두를 상회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육의 방출을 무제한 확대하고 있으나 좀처럼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두수 증가에 따른 재고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낙농부문에 있어서는 금년 봄의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신규참여농가의 증가와 함께 젖소 사육두수와 원유의 공급이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원유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위장유제품인 코코아분유 및 조정식용유지와 같은 자유화품목의 수입 증가, 1994

년에 예정된 치즈의 원료인 커어드의 수입 자유화 및 최근의 경기 침체 등 낙농을 둘러싼 제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우유 소비의 75%를 차지하는 시유 소비가 1992년말 현재 연간 1인당 33kg 으로 정체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총납유량의 5.0%를 상회하는 치즈 생산이 수입 커어드로 대체될 경우 1994년 이후의 공급과잉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1994년 하반기 이후 젖소 도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국내 우육경제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6월 26일 타결된 대미 우육협상에서 연간 수입할당량을 1993년에 9만 9천톤을 시작으로 매년 7%씩 늘려 1995년에 11만 3천톤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상 유통측면에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업체자율구매라 할 수 있는 SBS(동시매매입찰제도) 물량이 수입할당량의 10%에 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급육 수입이 그만큼 늘어남에 따라 한우육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최근 우육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이 호황속의 불안을 예고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고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우선 우육 수급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금후 국내 우육경제의 전망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미 쇠고기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개방을 전후한 상황 변화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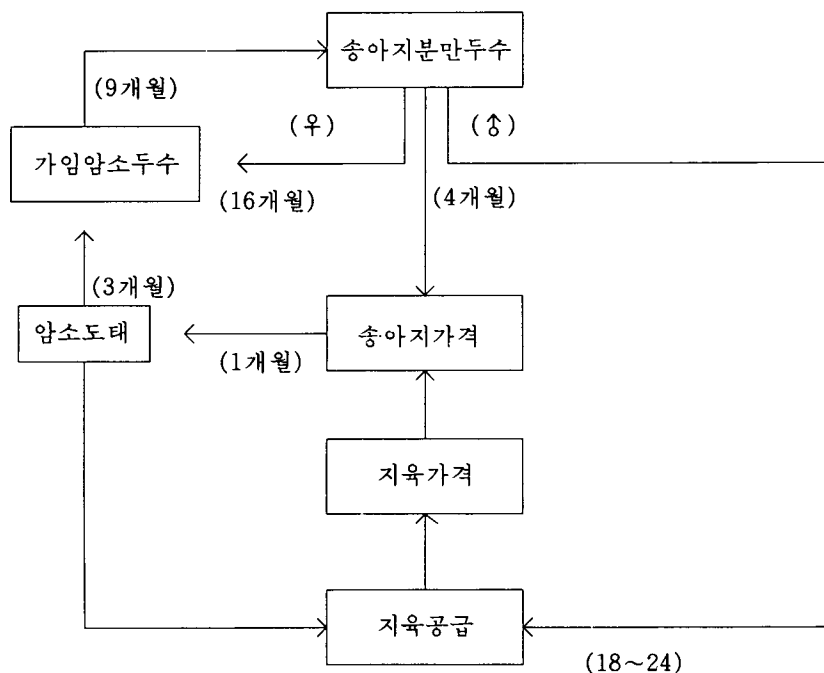
2. 우육경제의 구조와 수급 전망

가. 공급의 구조적 특성

국내의 우육경제는 한우, 젖소 및 수입육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젖소는 노폐우의 공급이 원유가격 변동에 따라 변화를 나타낸다. 수입육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공급물량의 조절을 실시하고 있어 하나의 정책변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육경제는 실질적으로 한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우육경제를 구성하는 요소 상호간의 관계를 간략화하여 도시한 것이다.

그림 1 우육경제의 구조



여기서 ()안의 숫자는 구성요소 상호간의 시차(時差)를 나타낸다. 우선 우육경제의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 지육가격이 결정되는 도매 시장이다. 도매시장에서의 지육가격의 변동은 거의 동시에 송아지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송아지가격의 변동은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동반하며 암소 도태두수에 영향을 미쳐 약 3개월의 비육기간이 지난후 가임암소두수를 결정한다. 이는 다시 9개월후의 송아지 분만두수를 결정한다. 송아지

분만두수는 4개월후의 송아지 시장가격, 25개월후의 가임암소두수 및 2년후의 지육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육가격의 변동에 따른 파급효과가 다시 도매시장의 지육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3년 정도의 기술적인 시차를 동반하며, 이론적인 우육주기는 그의 두 배인 6년 전후가 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측면에서의 조정경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육가격 상승⇒송아지가격 상승⇒암소 토태 감소⇒암소육 공급 감소⇒지육가격 상승 가속화(종부전)

(2) 지육가격 상승⇒송아지가격 상승⇒종부두수 증가⇒송아지 생산 증가⇒지육 공급량 증가⇒지육가격 하락(종부후)

(3) 송아지가격 상승⇒종부두수 증가⇒송아지 생산 증가⇒송아지가격 하락(종부후)

위에서 첫째 경로는 분만을 마친 공태우(空胎牛)를 토태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시 종부시킬 것이냐에 관한 번식농가의 의사결정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즉, 지육가격 상승은 송아지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번식농가는 암소 도태를 줄이게 된다. 그 결과 암소 도살이 감소함에 따라 단기적인 지육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둘째 경로는 종부후의 조정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즉, 지육가격 상승에 따라 송아지가격이 상승하면 이에 자극되어 종부두수가 증가한다. 그 결과 송아지 생산이 증가하고 육성·비육을 거쳐 도매시장의 출하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육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는 첫째 경로에 비해 보다 긴 시간을 요하는 조정경로로 볼 수 있다.

셋째 경로는 송아지시장의 수급관계를 나타낸다. 어떤 이유에서든 송아지가격의 상승이 유발될 경우 이는 종부두수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 결과 송아지 생산이 증가하여 송아지시장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즉, 송아지가격 상승 이후 9개월의 임신기간과 4개월의 이유기간이 지난후 송아지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단, 이 경우 암송아지의 경우는 가임연령인 16개월 전후가 되면 첫째 경로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수송아지의 경우는 둘째 경로에 편입된다.

위의 세 가지 경로에 따른 공급조정은 가격 하락의 경우에도 역으로 적용된다. 단, 위에서 가격 상승시에 번식농가가 종부두수의 증가를 위해 암소 도살을 지연시킬뿐 아니라 암송아지로부터 가임암소를 육성하게 될 경우는 육성기간 만큼 조정경로가 연장된다. 또한 이상의 공급조정경로는 앞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시차를 동반한다. 따라서 우육경제는 이른바 '우육주기(Beef Cycle)'라 하는 순환변동을 나타낸다. 그 경우의 우육주기는 전술한 3가지의 조정경로에 의한 합성진동(合成振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료부문, 대체육부문 및 수입육부문 등과 같은 우육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육주기가 왜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육주기는 전술한 기술적인 시차만을 고려한 6년에서 벗어나기 쉽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186개월간(1978.1~1993.6)의 한·육우의 지육가격을 이용한 우육주기는 1983년 3/4분기(21)에 정점에 도달한 후 1991년 4/4분기(54)에 다시 정점을 형성해 약 8년의 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2년 3/4분기(57) 이후 우육주기가 뚜렷한 하강국면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8년 4/4분기(42) 이후 주기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수입 재개에 따른 생산농가의 심리적 불안 및 과도한 수입을 통한 정책 개입으로 인해 주기 자체가 왜곡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위의 조정경로를 중심으로 볼 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소값 상승의 공급측 요인은 다음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위의 첫번째 경로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다. 즉, 가격 상승에 자극되어 번식농가가 암소 도태를 줄임에 따라 암소육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암소 도축두수는 지난 2월의 9천 8백두를 최저로 6월말 현재 1만 5천두에 달해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단은 암소의 출하 기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위의 두번째 경로인 수송아지의 비육출하에 있어서 미래의 가격

상승을 겨냥한 출하기피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수소 도축두수를 보면 지난 3월의 2만 4천두를 고비로 6월말 현재 2만 1천두를 나타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란 점에서 수요의 성수기인 추석을 겨냥한 출하기피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육주기라는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격 상승현상은 장기적인 추세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같은 의미에서 가임암소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1994년에 소값 하락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수요구조의 변화

수요측면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변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1993년 상반기(1~5월)의 쇠고기 총소비량은 85,273톤으로 전년 동기의 91,669톤에 비해 7.0%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국내산의 비율(절대량)이 1992년의 43.9%(40,270톤)에서 1993년에는 58.9%(50,185톤)로 증가하였다(표 1 참조).

한편 1993년 전반기(1~6월)의 도살두수를 보면 한우의 경우 절대두수 및 비율 모두가 199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젖소는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 기간동안 원유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젖소 도살이 감소한 효과도 있으나 전체적인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우의 소비량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지속되어 온 경기 침체 및 1993년에 들어와 문민정부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사회정화의 분위기 속에서 외식부문이 위축됨에 따라 쇠고기 소비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대중음식점의 수입육 수요 감소와 함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수입육 방출량의 감소가 겹쳐 5개월간(1~5월)의 수입육 소비가 1992년의 5만 1천톤에서 3만 5천톤으로 무려 32%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소비는 같은 기간동안 9만 천톤에서 8만 5천톤으로 7.0%의

그림 2 우육주기, 1978~9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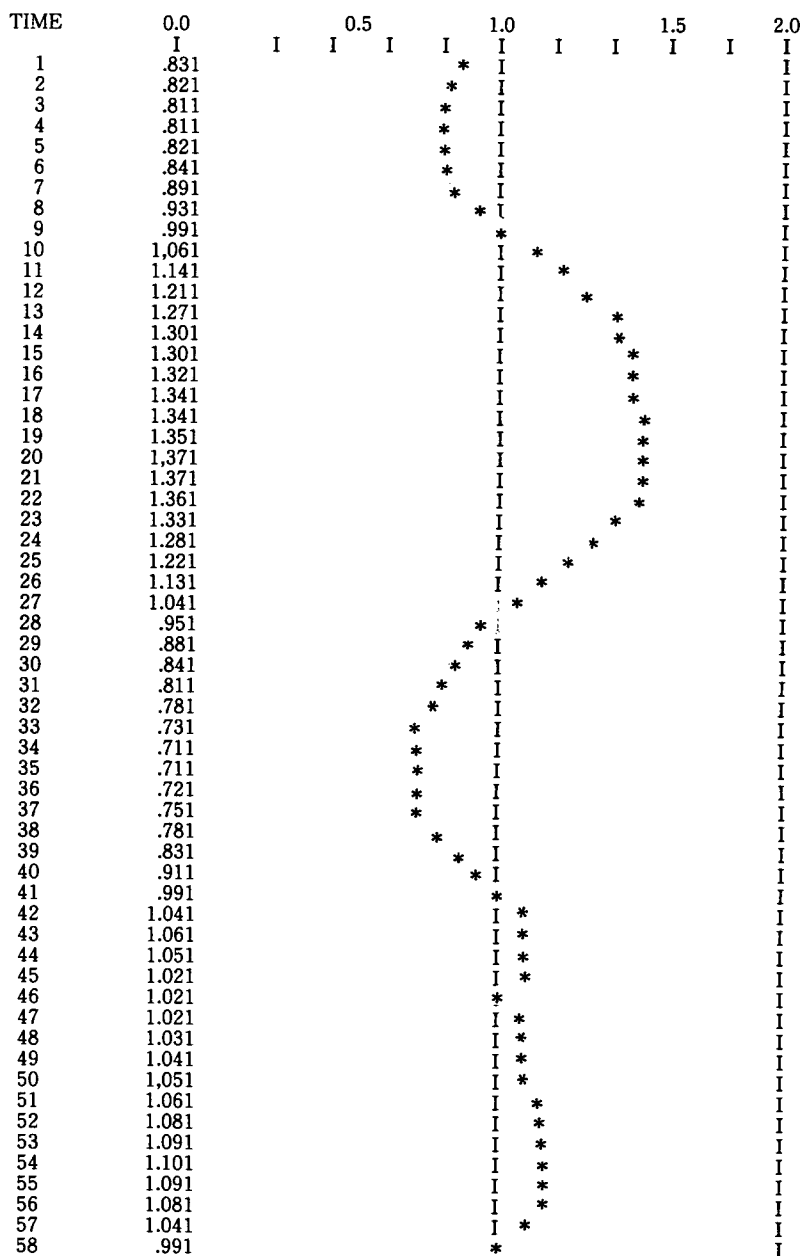


표 1 우육의 소비구조변화, 1992~93

소 비 량				도 살 두 수		
	1992		1993		1992	1993
	1~5월	6~12월	계	1~5월	1~6월	1~6월
국내산	40,270톤 (43.9%)	59,307 (43.9)	99,577 (43.9)	50,185 (58.9)	한 우 161천두 (64.4)	266 (72.4)
수입육	51,399 (56.1)	75,915 (56.1)	127,314 (56.1)	35,088 (41.1)	젖 소 89 (35.6)	86 (27.6)
계	91,669 (100.0)	135,222 (100.0)	226,891 (100.0)	85,273 (100.0)	계 250 (100.0)	312 (100.0)

자료: 축협중앙회, 축협조사제보.

감소에 그쳤다. 결국 소비가 감소한 수입육의 대부분이 국내산에 의해 대체된 셈이다. 또한 그 경우의 국내산의 소비 증가가 한우육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소값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매우 조심스런 추정이지만 하나 쇠고기의 가정 소비가 점차 한우육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92년 7월부터 실시된 '도체등급제'에 따른 생산농가의 차별화노력이 소비자에 의한 '제품차별화'로 이어져 한우육의 '시장분리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우육전문판매점의 증가 및 추석을 겨냥한 대형 유통업체의 물량 확보를 위한 한우육에 대한 가수요가 겹쳐 수요측의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 소비가 한우육 위주로 전환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지속적인 소비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같은 측면에서 최근의 소값 상승은 공급측면과 마찬가지로 수요측면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일본의 경험

일본은 이미 1991년 4월부터 쇠고기시장을 개방한 이래 만 2년의 시간

이 경과하였다. 쇠고기의 수급을 둘러싼 한일간의 유사성 만큼이나 적지 않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일본의 경험은 앞으로 국내 문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개방을 전후한 시점 및 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가. ‘Beef is not beef in Japan’의 신화는 착각인가?

일찍이 일본은 1955년에 GATT에 가입한 이후 1963년에 GATT 11조국으로 이행(BOP 졸업)하였다. 그후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폭이 101억 달러를 기록한 1978년을 전후해서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을 시작했다. 수입 할당량을 둘러싼 양국간의 수 차례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1988년 5월 양국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일본의 불공정무역을 이유로 GATT에 제소하였다. 곧 이어 미국의 야이터 통상대표가 일본을 방문하여 당시 사또 농림대신과 협상한 결과 1991년 4월부터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일본의 수입 할당량은 27만 4천톤이었으며, 냉장 및 숙성육을 포함한 특별수입량이 6만 6천톤, SBS물량이 수입 할당량의 30%였다.

한편 수입개방을 전후해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Beef is not beef in Japan(쇠고기라고 다 쇠고기가 아니다)’이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즉, 수입 할당량하에서 일본의 쇠고기시장에서 수입육이 젓소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B3 이상의 등급과 대체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화우육과 수입육간에는 거의 대체성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사태는 달랐다. 즉, 자유화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입육과 화우육과의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 내용은 자유화 이전 단계에 있어서는 수입육은 대부분 젓소 노폐우와 강한 대체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유화 이후에 계측된 결과에 있어서는 유우거세비육은 물론 화우거세비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본의 수입자유화는 점차 ‘Beef is beef’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일본의 국산우육과 수입우육의 가격관계

계측기간	국산우육	호주산						미국산					
		1	2	3	4	5	6	1	2	3	4	5	6
1988. 4	화우거세	1	0	2	9	37	15	3	0	6	8	33	14
	유우거세	0	0	0	0	53	11	1	1	0	3	43	16
1990. 3	유경산우	0	0	1	7	49	7	0	2	4	6	40	12
	합 계	1	0	3	16	139	33	4	3	10	17	116	42
1990. 4	화우거세	0	0	7	21	36	0	0	0	10	28	26	0
	유우거세	0	2	25	31	6	0	11	8	15	22	8	0
1992. 9	유경산우	19	20	9	13	3	0	13	13	9	28	1	0
	합 계	19	22	41	65	45	0	24	21	34	78	35	0

주: 1) 위의 결과는 계측식(국산우육가격(PD) = $a + B$ 수입우육가격(PI))의 결과이며, 상단의 숫자 1,2,...6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a=0, B=1$; 동일상품), 2($a=0, B \neq 0, B \neq 1$; 정율관계), 3($a \neq 0, B=1$; 정액관계), 4($a \neq 0, B \neq 0, B \neq 1$; 정율 및 정액관계), 5($B=0$; 독립관계), 6($B < 0$; 부의 관계).

2) 하단의 숫자는 총 384개의 단순회귀의 계측결과에서 나타난 빈도수를 의미한다.

3) 호주산은 냉동 및 냉장육을 포함하는 8개 부분육, 미국산은 8개의 냉동부분육을 포함한다.

자료: '국산우육과 수입우육의 경합관계,' 畜産の情報, 1993.4, p.26~31.

더구나 위의 결과는 미국산의 경우 냉동육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뿐 아니라 일본의 쇠고기 소비패턴이 한국과 달리 '스끼야끼' 내지 '샤부샤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불고기 위주의 소비패턴을 지닌 한국의 경우 그 영향은 보다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자유화 이후 수입육은 1차적으로 대중음식점 및 가공분야를 완전히 점유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가정 소비를 부분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급 외식부문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1986년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32%, 가정 소비가 25%에 불과하던 것이 1993년 5월 현재 시장 점유율이 53%에 육박하고 있으며, 가정 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자유화의 파급효과

한편 상기와 같은 우육 생산부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 수입 자유화는 낙농부문에 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수송아지 및 노폐우가격의 폭락에 따른 경영압박의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경영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쇠고기의 수입 자유화를 전후한 낙농의 경영실태를 낙농 중심지인 북해도에 관해 살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따른 낙농경영수지 상황(북해도)

단위: 천엔

연도	낙농 수입			조수입	경영비	소득	소득률 (%)	경제 잉여
		원유 수입	개체 수입					
1989	26,678	21,159	5,519	28,732	18,836	9,896	34.4	6,058
1990	26,075	21,555	4,520	28,354	20,083	8,271	29.2	4,308
1991	25,659	22,631	3,028	27,763	20,804	6,959	25.1	3,172

자료: 北農中央會, 「낙농경영 긴급실태조사」, 1992.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화 1년전인 1990년부터 수송아지 및 노폐우의 가격 하락에 따른 개체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입 자유화가 결정되기 이전에 두당 15만엔을 상회하던 생후 1주일령의 유우 수송아지가격이 5만엔 전후로 하락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그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이 유우육과 수입육의 경합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의 소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첫째, 공급측면에서 추석을 겨냥한 출하 기피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수요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외식부문의 우육 소비가 대폭 가정 소비로 전환됨과 아울러 한우전문점의 확대 및 둔갑판매 감소에 따라 소비자의 한우육에 대한 제품 차별화로 인한 '시장 분리현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추석을 겨냥한 대형 유통업체의 물량 확보를 위한 가수요 역시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우육 주기는 이미 1992년 3/4분기 이후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가임암소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1994년에 소값 하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끝으로 소값 안정을 위한 정책 개입은 현실성 있는 가격안정대의 설정과 함께 가격안정대의 유지를 위한 범위내에서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민감한 정책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가격 안정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주제 발표

한우 사육 동향과 수급 전망 분석

문기한(축협중앙회 조사부장)

빈

면

주제 발표

한우 사육 동향과 수급 전망 분석

문기한(축협중앙회 조사부장)

1.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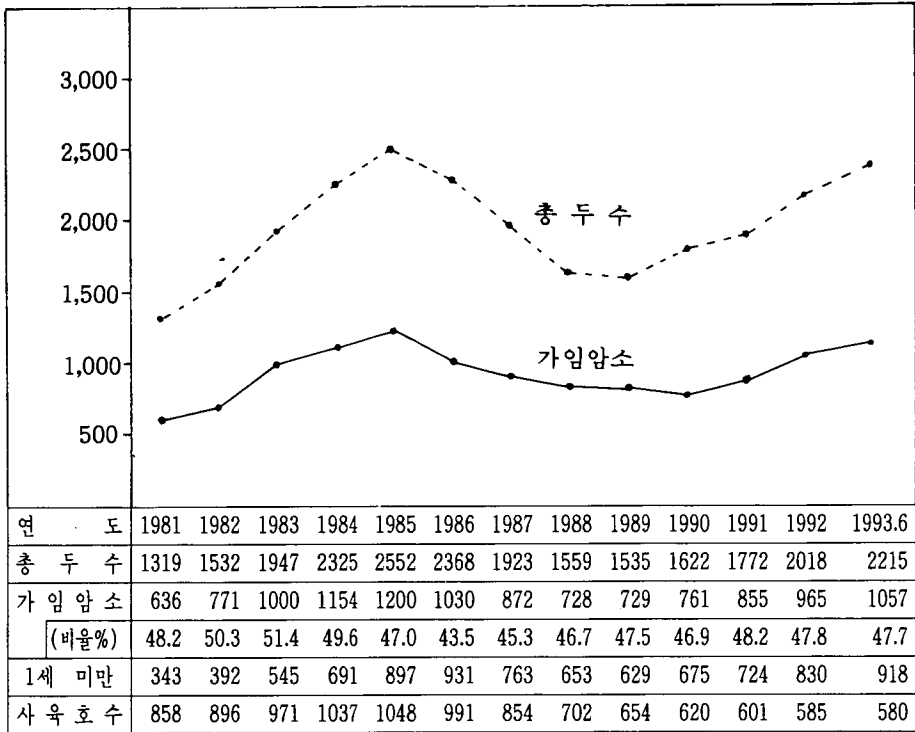
가. 사육 동향

1) 장기 사육 동향

○ 1981~83년 초까지의 소값 호황을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한 한육우 사육호수는 1985년까지 그 증가세가 계속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 한편 한육우 사육두수는 1985년까지 사육호수의 증가와 함께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9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199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더욱이 최근의 증가폭은 예년과 달리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1993년 6월의 사육두수는 2,215천두로 지난 연말에 비해 약 10%가 증가하였다.



② 단기 사육 동향(한육우)

단위: 천두

구 분		1992.3	6 (1)	9	12	1993.3 (2)	6 (3)	대 비	
								(3/1)	(3/2)
총 두 수		1790	1913	2019	2019	2007	2215	15.8	10.4
1세 미만	암	293	327	353	350	335	368	12.5	9.8
	수	421	470	496	480	458	549	16.9	19.9
1 ~ 2 세	암	169	174	182	181	184	196	12.6	6.5
	수	95	102	116	122	116	129	26.4	11.2
2세 이상	암	804	832	862	875	903	956	15.2	6.2
	수	8	8	9	11	10	13	62.5	30.0
가 임 암 소 (1.5세 이상)		888	919	954	965	997	1057	15.0	6.0

○ 한육우 총두수는 1993년 6월 현재 2,215천두로 1년전보다 302천두(15.8%), 3개월전보다 208천두(10.4%)가 각각 증가하였다.

○ 이 가운데 1.5세 이상 가임암소는 1,057천두로 1년전보다 138천두(15.0%), 3개월전보다 60천두(6.0%)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송아지 생산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특히 1~2세 수컷마리수가 1년전보다 26.4%나 크게 증가하여 향후 출하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생산지표 변동

단위: %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송아지생산계수	54.1	63.8	62.2	71.5	70.2	64.6	63.4	71.6	77.8	82.6	85.7
도축률	22.0	18.8	21.1	29.0	39.4	40.4	42.5	31.7	29.2	27.0	25.2
가임암소비율	50.3	51.4	49.6	47.0	43.5	45.3	46.7	47.5	46.9	48.2	47.8

주: 1) 송아지 생산계수=(당년도 한우송아지/생산수 전년도말가임암소수)×100

2) 도축률=(당년도 한육우 총 도축수 전년도말 한육우 총 두수)×100

3) 가임암소 비율=(1.5세 가임암소수 한육우 총 두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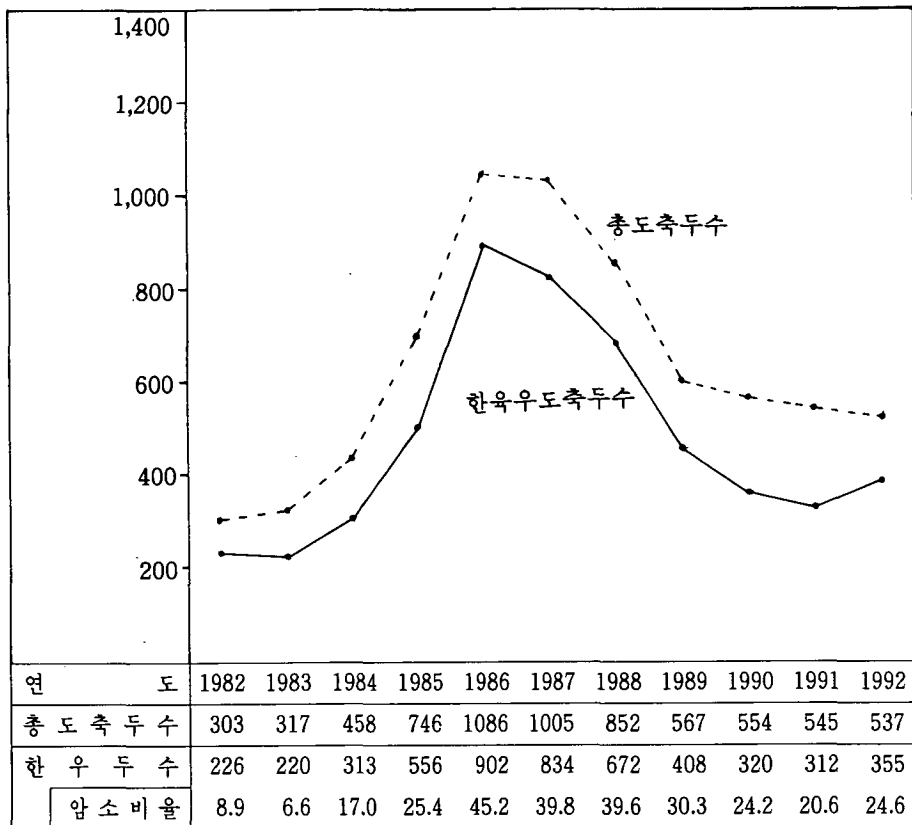
○ 가임 암소수에 대한 송아지 생산수를 비율로 나타내는 송아지 생산계수는 소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소값의 하락국면에서는 소값 최고점에서 2년후에까지 계수가 떨어지고 상승국면에서는 소값 최저점의 2년후부터 올라가게 된다.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소값이 오를 때에는 번식의욕이 왕성하여 수정 가능한 거의 모든 의욕이 높지만 기존의 임신우 때문에 2년후까지는 총마리수가 늘게 된다.

○ 한편 1985~86년의 소값 침체기에 송아지 생산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중암소 집중 수매에 따라 가임암소수가 크게 감소한 요인도 가세했다고 본다. 1.5세 이상 가임암소 비율은 수매비축이 집중된 1985~86년은 제외하면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나. 거래 동향

② 도축두수

단위: 천두, %



○ 총도축두수는 1986년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추세가 작년까지 6년간 계속되었다. 이중 한우두수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13.8% 증가한 355천두가 도축되었다.

○ 한편 총도축두수중에서 차지하는 한우압소의 비율은 1987년을 정점으로 1991년까지는 감소 성향을 보였으나 작년부터는 증가성향으로 반전되었다.

② 서울지역 유통량(1일 평균)

단위: 두/일, %

구 분	1992		1993		대 비	
	3 월	8 (1)	3 (2)	8 (3)	(3/1)	(3/2)
도매시장경락두수	202	233	335	279	19.7	△ 16.7
지 방 육 반 입 량	150	182	273	200	9.9	△ 26.7
수 입 육 방 출 량	1,304	1,891	385	1,179	△ 37.6	206.2
계	1,656	2,306	993	1,658	△ 28.1	67.0

○ 1993년 8월 도매시장 경락두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 19.7%가 증가한 반면에 1993년 3월에 비해서는 16.7%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육 반입량 역시 1993년 8월 현재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9.9% 증가하였으나 1993년 3월에 비해서는 2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1993년 8월 현재 수입육 방출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37.6% 감소하였으나 1993년 3월에 비해서는 무려 206.6%의 큰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③ 가축시장 거래두수(1일 평균)

구 분		1992		1993		대 비	
		3 월	8 (1)	3 (2)	8 (3)	(3/1)	(3/2)
수송아지	출장두수	331	518	504	509	△ 1.7	△ 1.0
	거 래 율	70.0	74.7	73.0	72.7	△ 2.7	△ 0.4
중 암 소	출장두수	104	124	140	174	40.3	24.3
	거 래 율	54.8	59.2	62.5	61.2	3.4	△ 2.1
큰 수 소	출장두수	216	273	337	279	2.2	△ 17.2
	거 래 율	87.0	85.4	82.3	85.3	△ 0.1	3.6

○ 수송아지 출장두수는 1993년 8월 현재 일평균 509두로 전년 동기 대비 1.7%가 감소하였으나 지난 3월에 비해서는 1.0%가 증가하였으며, 거래율은 전년 동기와 동년 3월에 비해 각각 2.7%,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암소 출장두수는 8월 현재 일평균 174두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0.3%, 금년 3월에 비해서는 24.3%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거래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하고 금년 3월에 비해서는 2.1%가 감소하였다.

○ 큰수소 출장두수는 8월 현재 일평균 279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가 증가하였으나, 금년 3월 보다는 17.2%가 감소하였고 거래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가 감소하였으나, 금년 3월보다는 3.6%가 증가하였다.

④ '93 상반기 소비 동향

단위: 톤

구 분	1992.1	2	3	4	5	6	상반기계
'92	28,816	13,931	16,339	16,453	18,364	17,790	109,693
총소비량 '93	22,565	12,819	15,200	18,850	16,591	18,665	104,691
대 비	△ 21.7	8.0	7.0	14.6	△ 9.7	△ 4.9	△ 4.6
'92	11,669	6,463	7,109	7,546	7,445	6,818	47,050
국 내 산 '93	13,122	7,839	10,640	9,907	9,549	9,369	60,427
대 비	12.5	21.3	49.7	31.2	28.3	37.4	28.4
그 중 '92	7,181	3,926	4,514	4,781	4,603	4,300	29,305
한 우 '93	9,086	5,385	7,330	7,059	7,014	5,757	42,631
대 비	26.5	37.2	62.4	47.6	52.4	57.1	45.5
'92	15,147	7,468	9,230	8,907	10,919	10,972	62,643
수 입 육 '93	9,443	4,980	4,560	8,943	7,042	9,296	44,264
대 비	△ 37.7	△ 33.3	△ 49.4	0.4	△ 35.5	△ 15.3	△ 29.3

○ 1993 상반기 쇠고기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총소비량은 5% 감소한 105천톤으로 나타내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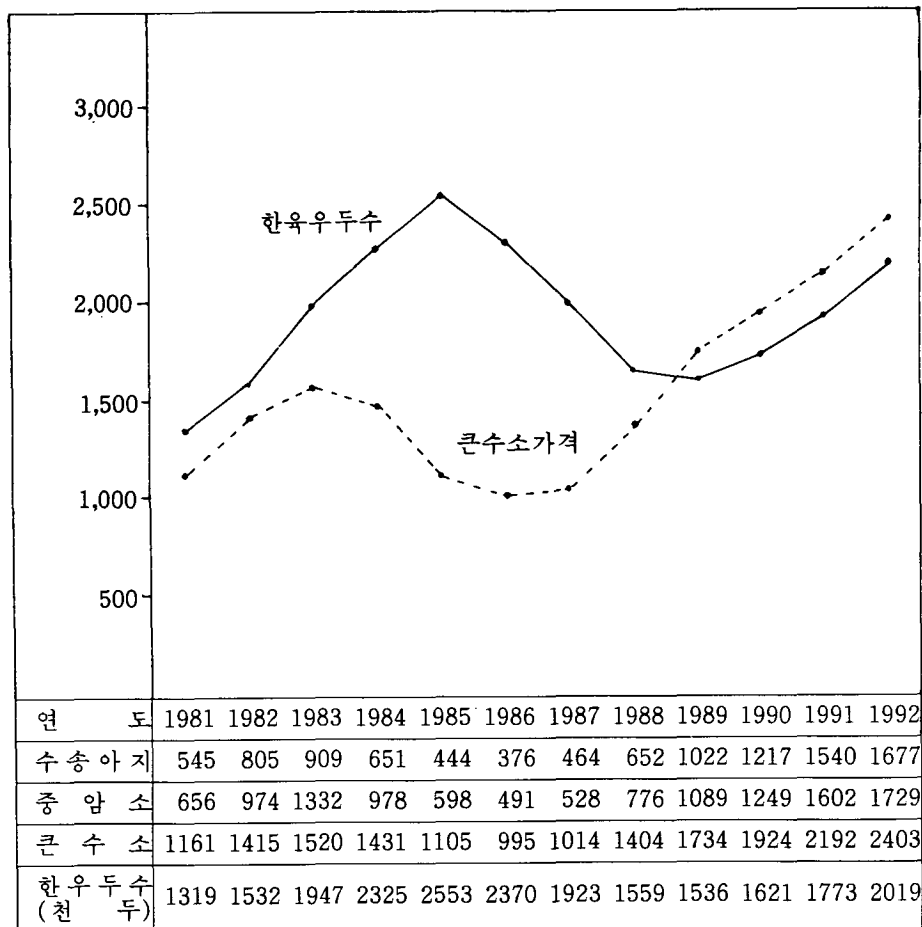
○ 이 가운데 국내산 소비량은 60천톤으로 28%가 증가한 반면에 수입우육은 44천톤으로 오히려 29%나 감소하였다.

○ 특히 국내산 소비량중 한우육 소비량은 50%나 크게 증가한 43천톤을 나타내었다.

다. 가격 동향

㉑ 장기 산지가격

단위: 천원/두



○ 산지 소값은 1983년까지 상승하였으나 그동안 소값 호황에 따라 입식의욕이 과열되고 생우 수입으로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장기적인 하락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1987년까지 계속 약 4년간 침체기간이 지나고, 그 후 상승하여 지난해 9월('92.9.17 : 2,256천원)에 최고 시세를 보였다.

○ 산지 소값과 한육우 사육두수 관계를 살펴보면 한육우 사육두수는 산지 소값이 하락국면으로 돌아선 1983년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1985년까지 증가하였으며, 산지 소값이 상승국면으로 돌아선 1986년으로부터 2년이 지난 1989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연말에 소값이 하락국면으로 진입하였다고 본다면 사육마리수는 1994년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㉔ 단기 산지가격

단위: 천원/두, %

구분	1992년(A)						1993년(B)				대비(B/A)			
	2	4	6	8	10	12월	2	4	6	8월상순	2	4	6	8월
수송아지	1688	1721	1767	1746	1706	1378	1313	1337	1420	1448	77.8	77.7	80.4	82.9
중 암 소 (250kg)	1764	1742	1777	1767	1739	1540	1461	1439	1469	1470	82.8	82.6	82.7	83.2
큰 수 소 (400kg)	2383	2429	2470	2509	2450	2130	1942	2063	2183	2322	81.5	84.9	88.4	92.5

○ 금년도 산지 큰 수소값(400kg)은 전년 동기 대비 7.5~18.5%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추석 성수기가 가까워지면서 점차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송아지와 중암소의 경우는 큰 변화없이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금년초 산지 소값은 약세를 나타내었으나 한우고기의 우수성 홍보, 전문판매점 확대 설치(생산자 단체 유통부문 참여)에 따라 한우고기 선호도가 향상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년 8월 상순 현재 큰 수소값은 2,322천원으로 금년 2월 1,942천원보다 19.5%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7.5% 하락세를 보였다.

③ 서울지역 도매시장 가격

단위: 원/kg, %

구 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9	1992.12	1993.3	8/14
한 우 (1)	6008	4491	4036	4127	5797	6979	7616	8368	9159	8187	7507	9200
젖 소 (2)	5560	4215	3672	3672	5299	5912	6434	7169	7319	7075	6399	5663
가격차이 (1~2)	448	276	364	455	498	1067	1182	1199	1840	1112	1108	3537
가격차율	7.5	6.1	9.0	11.0	8.6	15.3	15.5	14.3	20.1	13.6	14.8	38.4

주: 가격차율=(한우가격-젖소가격) 한우가격×100

○ 서울지역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 경락가격과 젖소 경락가격을 비교해 보면 1988년까지는 두 축종간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1989년 이후 비교적 큰 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특히 금년 8월 이후에는 예년과 달리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8월 14일 현재 서울지역 경락가격은 한우가 지육 Kg당 9,200원, 젖소가 5,663원으로 젖소가 한우보다 무려 3,537원(38.4%)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

④ 소비자 가격

단위: 원/50g

구 분	1989		1980		1981		1992				1993		
	3	9	3	9	3	9	3	6	9	12	3	6	7
국내산 (1)	5270	5219	5481	5896	6252	6600	6891	7095	7280	7442	6891	7225	7125
수입육 (2)	2229	2283	2277	2771	2360	3008	2784	2791	2911	3838	3392	3588	3222
차액(1-2)	3041	2936	3204	3125	3892	3592	4707	4304	4369	3604	3499	3637	3903
차율 (%)	57.7	56.3	58.5	53.0	62.3	54.4	59.6	60.7	60.0	48.4	50.8	50.3	54.8

주: 1) 수입육 방출가격 = 수입육 방출총액 총방출량 (고급육포함, SBS용 제외)

2) 차율=(국내산-수입육) 국내산×100

○ 국내산 쇠고기 소비자가격과 수입쇠고기 방출 평균가격의 관계를 보면 두 가격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나타난 수치를 보면 수입쇠고기 정책이 국내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차원에서 소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수급 및 가격 전망

가. 사육 전망

① 장기 전망

단위: 천두

구 분		한 육 우		젖 소		전 체 두 수	
		총두수	가임암소	총두수	가임암소	총두수	가임암소
통계치	'92. 12월	2,019	965	508	348	2,527	1,314
	'93. 6월	2,215	1,057	508	366	2,751	1,423
관측치	'93. 12월	2,300	1,100	520	350	2,820	1,450
	'94. 12월	2,400	1,140	530	360	2,930	1,500
	'95. 12월	2,500	1,200	530	360	3,030	1,560
	('92.대비,%)	123.8	(124.4)	(104.3)	(103.2)	(120.0)	(118.7)

<이용자료>

	한 육 우 ('82~'92 평균)	젖 소 ('82~'92 평균)
-가임암소 비율:총두수의	47.7%	67.9
-송아지 생산계수:가임암소의	69.8%	70.9
-통계불일치 계수:기초총두수+생산두수의	4.0%	3.6
-연간 도축비율:기초총두수의	29.7%	18.4

○ 향후 소 사육두수는 1995년까지 증가세가 예상된다. 그리하여 1995년에는 한육우가 2,500천두, 젖소가 530천두로서 1992년보다 한육우는 23.8%, 젖소는 4.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1993~95년간의 연평균 마리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육우는 7.4%, 젖소는 1.4%가 각각 증가될 것이며 소 전체두수는 6.2%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단기 전망

단위: 천두

구 분	1993. 6(통계치)	9	12	1994. 3
① 사육의향 조사결과	2,215	2,346	2,481	2,583
② 관측모형 I 안 (Log-log 함수)	2,215	2,330	2,250	2,253
③ 관측모형 II 안 (Linear 함수)	2,215	2,308	2,215	2,208
④ 번식률 이용 분석	2,215	2,332	2,330	2,343
⑤ 인공수정 실적 이용분석	2,215	2,289	2,290	2,307
총 합	2,215	2,320	2,310	2,340
대 비 (%)	1000.0	104.7	104.3	105.6

○ 사육두수 전망을 5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를 보면 내년 3월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이유는 송아지값 회복에 따른 2세 이상 마리수가 증가하였고, 금년 4월부터는 소값이 안정되기 시작 했으며, 우편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선농가에서는 한우값이 꾸준히 호황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한우육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양축가들의 사육의욕이 고조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 수요 전망

1 추정방법 및 전제조건

- 1인당 GNP를 기준으로 1인당 쇠고기 수요량 산출
- 1인당 수요량에 인구를 곱하여 총수요량 산출
- '81~'93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로 모델을 유도한후 '94~'95년 수요량 산출
- 인 구 1993년 : 44,056천명
 1994년 : 44,453천명
 1995년 : 44,851천명
- 경제성장률 1993년:6.0%(1인당 GNP증가율 : 5.0%)
 1994 : 7.1%(1인당 GNP증가율 : 6.1%)
 1995 : 7.2%(1인당 GNP증가율 : 6.2%)
- ※ 1인당 GNP증가율은 경제성장율에서 인구증가율(약 1%)을 빼준것

2 모 델

$$QB = -18903 + 2906.70 \ln GNP$$

(-6.01) (7.17)

$$R^2 = 0.8236, N=13('81\sim'93)$$

QB : 쇠고기 1인당 수요량(g)

GNP : 1인당 소득 ('85년 불변소득,천원)

3 추정결과

구 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총수요량 (천톤)	통계치	93	107	115	107	120	148	115	142	143	177	223	227	(234)
	추정치	85	94	108	117	126	140	154	168	178	189	199	210	216
1인당 (Kg)	통계치	2.4	2.7	2.9	2.6	2.9	3.6	3.6	3.4	3.4	4.1	5.2	5.2	(5.3)
	추정치	2.2	2.4	2.7	2.9	3.1	3.4	3.7	4.0	4.2	4.4	4.6	4.7	4.9

주: ()내는 '93년 계획치임

○ 수요 추정 결과 추정치와 통계치를 비교해 보면 1984~90년에는 추정치가 통계치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수입쇠고기 물량이 10만톤 이

상 방출된 1991년 이후에는 추정치가 통계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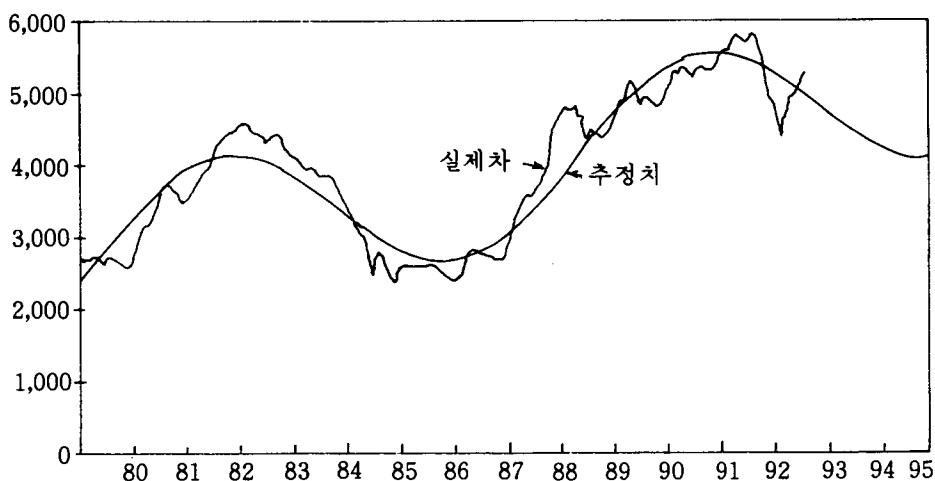
○ 이는 수입쇠고기의 방출물량이 쇠고기 수요량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1991~92년의 쇠고기 수요는 정상적인 수요량이기 보다는 물가안정차원에서 저렴한 수입쇠고기를 대량 공급함에 따라서 소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따라서 1993~95년간의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3.5% 정도가 예상되어 1995년의 총 수요량은 252천톤 내외로 전망된다.

다. 가격 전망

㉠ 장기 전망(주기 변동)

(1) 소값 변동 추세(실질가격)



* 추정 함수식

$$RPCT = 1,414.70 + 13.31 T + 775.53 \sin 108 + 722.35 \cos 108$$

$$(14.04) \quad (23.69) \quad (20.40) \quad (18.68)$$

$$R-Square = 0.8935, N = 164 ('80.1 \sim '93.8 \text{월}), () \text{ 내는 } T \text{ 값}$$

<용어해설>

RPCT=T월의 한우 실질가격('90년기준, kg/원, 400kg 수소 기준)

T='80.1월을 [1] 로한 순번

Sin 108 및 Cos 108=108개월 주기 변수

(2) 추정결과

주기 변동을 이용하여 향후 소값을 전망해 보면 1986~87년에 약세를 보였던 산지 소값은 1988~92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1993년 이후에는 약세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동 제 치	추 정 치		
	1992	1993	1994	1995
큰 수 소 (천 원 / 두)	2,246	2,020	1,802	1,663
대 비 (%)	100.0	89.9	80.2	74.0

주 : 1) 가격은 '90년 기준 불변가격임

2)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2% 정도 적용

㉔ 단기 전망(추석 전, 후 소값)

추석전 : 강보합세 예상

○ 작년 추석전(9월)에 큰 수소가격(400kg)은 250만원 수준때까지 형성된후 하락세를 보여 금년 3월에는 180만원대 수준을 나타내었다.

○ 그러나 4월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8월 중순 현재 230만원 수준을 나타내어 추석전까지 강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요인은 쇠고기산업 자체요인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쇠고기산업 자체에 몇 가지 큰 변화를 들수 있는데 첫째, 생산자단체(축협 등)의 유통부문 참여(한우 전문판매점 설치)로 한우육에 대한 소비자 신

퇴와 더불어 한우고기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로 보이고 있으며 둘째, 신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상도덕이 서서히 정착되면서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판매되는 현상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한우고기와 젓소고기의 구분 판매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한우값과 젓소값의 산지가격 차이가 생체 kg당 2,000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나라도 일본의 화우 경우와 비슷한 쇠고기 산업문화(한우고기, 젓소고기, 수입쇠고기)현상이 나타나면서 육류시장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한우 송아지값이 높은 값에 형성되고 있어서 암소도축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젓소 노폐우값 하락에 따른 도태 기피로 사육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이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다음 계절적인 요인으로는 우리 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는 순수한 한우고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석 60일전부터 추석 직전까지 산지 소값은 상승국면을 나타내는 것이 예년의 가격 변동에서 볼 수 있다.

추석 이후 : 약세 예상

○ 추석 이후에는 육류 소비가 시기적으로 약간 위축되는 현상을 예년의 소값 변동 추세에도 찾아 볼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축협의 유통부문 참여(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확대 설치 등)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석 이후 소값은 큰폭의 하락세가 아닌 약세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다.

○ 주된 하락요인으로는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과 수입쇠고기 쿼터량의 소진을 위하여 수입쇠고기 방출량 확대가 예상되고 금년 4월 이후 소값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사육의욕이 높아있고, 가임암소가 100만마리를 상회하여 한우 마리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93~95년간의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3.5%인데, 전체 소 사육두수의 증가율은 6.2%로 수요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빈

면

토론 내용

비

면

토론 내용

좌장 :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는 장관님 격려사만 해 주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처럼 오늘 중요한 현장에서 지도자 여러분들을 뵙고, 직접 건의라든지 의견을 듣는 이런 기회가 대단히 귀중할 것 같아 장관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15분정도로 간략히 요점만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15분정도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겠습니다. 특별히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분이냐 자기 성함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분, 어디 계신 어느 분이냐 라고 말씀을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석(안동 황우촌) : 정부에서 한우육 자급율을 앞으로 50%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50%의 자급년도는 언제까지 50%로 잡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한우가격 안정대에 관해서 구구한 설이 많은데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된다면, 어떠한 가격에 어떻게 정착이 되는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신행(농림수산부 장관) : 제가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얘기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좌장 : 먼저 계속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닫는 범위내에서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이나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축산국장님 그리고 실무자들이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분 말씀해 주시죠.

엄기호(황성축협 조합장) : 제가 아까 토론회에서 듣기로는 97년도쯤되면 개방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한우를 고급화하여도 가격면에서 수입육과 경쟁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처럼 송아지가격의 안정대없이 큰소가격 안정대만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것이 타당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송아지가격 안정대를 어느 연도부터 실시하실 계획이신지?

그 다음 둘째 문제는 저희가 개방화 된다고 보면, 일본은 91년도에 개방화되면서 관세 30%를 70%로 올려 4년동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저희 나라는 양허관세로서 20%의 관세를 양보하고 부가세 2.5%해서 22.5%로 개방화된다고 봤을 때에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허관세를 철회하고 관세를 일본과 같이 기존의 관세에 약 2배 정도 올려가지고 그 기간을 끌어주었을 때에 저희 축산농가가 부활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장 : 네, 감사합니다. 다음분 말씀해주십시오.

한우비육 농민(전남 승주) : 송아지생산을 그룹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번식우는 영세농가가 비육하고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송아지가격 안정대사업이 내년 부터 실시될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자금난 때문에 실시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아지가격 안정대 사업을 실시해서 송아지를 저렴한 생산비에 생산하려면 송아지의 생산을 규모화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다두사육이 가지는 경제성이라든지, 노동비 절감, 안정성, 전문성 이런 의미에서 송아지 생산을 규모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

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네 감사합니다. 다음분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철(남원축협 조합장) :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장관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전 비육우 관련 조합장님들과 축산농가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비를 낮추는 차원에서 볼 때 협업화농장내지는 작업사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경지 이용이라든가 산지이용, 초지조성 확대등 이러한 토지이용을 제고에 있어서 좀 더 행정적인 뒷받침과 현재의 규제를 좀 더 보완을 하셔서 누구나 여건만 갖추면 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좀 더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시죠.

김재현(파주 농민후계자) : 아까 말씀하시길 한우 비육전문화에서 현재 한우사육체제가 가구당 아마 20내지 30두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화로 될려면 100두이상을 사육을 해야 됩니다. 시설 및 이런 원가절감 방안쪽으로 해서 시설지원을 하고 있는데 100두를 어떻게 해야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전문화를 하려면 시설만 지원해 가지고 100두가 과연 확보가 될 수 있느냐? 그 시설을 지원받았지만 사육마리수가 적은 상태에서 그만한 이익을 올려서 지원받은 시설자금에 대한 빚을 갚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유통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시설지원만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난 85년도에 입식자금을 지원했을 때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오니, 시설만 지원받은 상태에서 100두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전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가를 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신재영(서천축협 조합장) : 한우산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우개량단지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한우개량 신규단지 숫자를 늘리는 것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도부터 신규단지 확장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한우가격이 지금 장기간 높게 형성되고, 축협에서 한우고기 판매를 하고 있고, 축산물 종합판매장 지원자금을 92년도말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중단되고 한우전문 판매점 지원자금만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에는 맞을지는 모르지만, 중소도시나 군단위 소재지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94년도 부터는 축산물종합판매장 지원자금을 더 지원해 주셔서 지금 현재 전국에 275개 축산물종합판매장이 있는데 이 숫자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네 감사합니다. 한두분만 더 듣겠습니다. 그쪽 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손드신 분 발표하시고 난 다음 시간제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장관님하과의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정태무(고향시 한우협회 회장) : 우리 협회는 자생단체입니다. 시작한 지 한 1년 됩니다. 하지만 축협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을 활성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92년도에 농어촌특별조치법 제 6조 규정에 의해서 5인이상이 조직되면, 그리고 거기에 작목별로 명목을 붙여서 조직이 되면, 법인등록에 의해서 농수산부에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조직된 단체에 모든 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보고 싶고, 또한 선전, 지원, 홍보자료 등을, 물론 축협은 활성화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함으로써 이런 조직을 육성, 발전시켜 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좌장 : 네 고맙습니다. 뒷쪽에 손드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 : 여러분은 요점만 얘기를 잘 하십니다. 다른데 가면 한두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축산하신 분들 모두 아주 말을 잘하십니다.

임희철(전남 무안 농어민 후계자) : 보통 저희가 정부의 많은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담보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농지도 얼마없이 비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할 것이 없는데, 그 담보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들쭉는, 앞으로 축협과 농민이 연대감을 가지게 하려면, 선진 농장경영방식으로 축협이 실질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선진농장으로 개발을 해 주신다면 더욱 축협과 농민이 한 몸이 되어 한우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평창축협 조합장) : 장관님께서 한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은 700억 내년은 또 얼마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저희 일선 조합장들이 어떻게 하면 한우에 대한 전문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농림수산부에서 시설자금은 지원해 주는데 입식자금은 전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손익을 많이 올릴려고 하면 시설투자는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생산에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든 초지조성비나 도로, 전기, 수자원개발 등등은 다 해 주는데 입식자금은 전혀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시설만 잔뜩해 놓고 소는 뭘로 키우라는 겁니까? 그래서 당국자들에게 얘기를 해 보면은, “시설은 해 줄테니까 자기돈으로 기를 수 있는 사람만 길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는 85년도에 「소값파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겁이 나가지고 입식자금은 전혀 못 준다는 것이 농수산부 정책이랍니다.

아까 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소가 열달만에 한마리씩 새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관님께서 이 사업의 시설자금을 줄여서 생산자금, 입식자금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 : 네 알겠습니다.

좌장 : 앞에 손드신 분 계시죠.

서윤근(충남공주한우사육농민) : 충남공주에서 한우를 기르고 있는 서윤근입니다. 김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육을 하자면 가족노동으로 100두 이상을 길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류식이든 개방식이든 지금 축사시설로는 100두를 도저히 키울 수 없습니다. 개방식 축사에는 방목장 또는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에 비닐을 씌워야한다는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에서는 건축물이므로 건축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비닐하우스를 씌울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상당히 평수를 많이 차지합니다. 비닐하우스 속에다 툇밥을 깔고 송아지를 입식시키면 병도 안걸리고 성장율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택법에 묶여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며 영세한 양축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설계비와 허가절차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장 :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손드신분이 계신데 마지막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4시부터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는 입장이어서 마지막 한분만 받겠습니다.

김춘한(충남 당진 비육우 협회회장) : 충남 당진 비육우 협회장 김춘한입니다. 저희 협회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자생단체로 설립되어 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4년도, 85년도 소값불황을 겪으면서 농민들은 자살하는 소동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분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불황때에도 정육업자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양축가들은 상당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축협의 한우전문판매점, 상표등록 등 많이 개선되었지만, 정육점에서 젓소, 폐우등이 한우로 둔값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도매시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도살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락동공판장은 폐우만 올라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서도 한우는 한우로, 폐우는 폐우로 판매되도록, 또한 가락동도매시장에서도 한우가 올라왔을때 좋은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에 잘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장 :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 한분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기본적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또 대단히 실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 축산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전부 참가를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시책에 반영해 주실줄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에 대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신행 장관 : 열 한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300여분들이 계신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면 다 말씀하실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열 한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계신줄 압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료가 정책 1, 2, 3으로 정해가지고 각자 다른 입맛을, 다른 문제를 전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사고의 전환이고 방법의 전환입니다. 지금 소를 기르시는 분들이 모였는데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개의 농산물에 엄청나게 다른 지역여건의 변화속에서 또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방법도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풀것인가? 그래서 우리 신농정하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바로 이 문제를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신농정하에서 정책전환의 큰 대목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율방식으로 하느냐? 바로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또는 품목별전문조직 등을 통해서 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관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우만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고 전국에 수만명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60만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한우를 기르시는 분들이 모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를 선발하십시오. 대표를 선발해서 가지고 그 중에서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대표를 선발하여 조직을 해서 그리고 우리 정책당국과 앉아가지고 문제를 전부 열거하십시오. 그래서 과연 어떤것은 정부가 해야되고, 어떤 것은 생산자단체가 해야되고, 어떤 것은 여러분이 해야되고, 어떤 것은 제도적으로 풀고 어떤것은 자금을 지원해야되는지를 전부 놓고 앉아서 설계를 하자 말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설계를 해야됩니다. 설계해서 문제를 전부 구분짓고 디자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장한 것 가운데는 적절한 것도 있고 적절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면 불만만 쌓이고 하니까 대표가 모여가지고 정책당국과 앉아서 문제를 전부 나열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도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바로 정부가 생산자조직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세요. 돈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도! 고쳐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우리생산 농민이 잘 해보겠다는데 과연 우리가 제도를 쥐고 고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전 양허관세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오래전에 양보해 놓은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이것도 여러분과 힘을 합쳐 관세도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수입최고기를 수입자유화할 계획은 안가지고 끝까지 버티겠지만 그러나 유비무환이라고 준비는 해야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쳐 같이 앉아서 해 나가봅시다.

자급율을 얼마를 유지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산에 생산성을 높이는가에 따라서 50%도 될수 있고 60%도 될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입개방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여건이 불리하지만 수입자유화 해가지고도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꼭 50%만 유지해야 됩니까! 60% 70%, 80%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축산업을 설계를 해서 다같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서 정부가 할일, 여러분이 할일을 구분하여 노력을 해간다면 열 한분이 물어본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답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격안정대를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은 합심해서 노력하지 않고 정부만 일방적으로 송아지값이나 소값을 일방적으로 안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기회가 신농정하에서 농어민자율방식추진, 또한 품목별로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대표를 선발해가지고 그 대표와 정책을 수립하는 우리당사자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공동으로 풀어나간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풀릴수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이번에 새로운 출발을 좀하시고 사고를 전환하신다면은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렇게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신농정하에서 분명하게 방향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처럼 모든것을 여러분은 건의만 하고 정부는 해결사마냥 다 될것처럼 노력을 해가는 척 해가지고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해오던 농정의 전철을 또 다시 밟을수 밖에 없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환해서 새롭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사항은 우리 축산국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양해를 해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표를 조직하여 보내주신면 몇 시간이고 밤늦게라도 만날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드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 : 순서를 진행상 약간 조절했습니다.

문기한(축협조사부장) : 발표

좌장 : 지금부터 휴식을 가지시고 3시 55분부터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정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북상주 송재원선생님, 낙농육우협회 김남원전무, 강원대 하서현교수, 오른편으로 외무부 통상기구과 안명수 서기관, 양평조합의 박경재조합장님 이상 여섯분이 지정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한분이 8분정도로 간략히 토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반참가자들의 토론과 발표자의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허신행장관께서 격려사후에 여러분 참가자들과 대화로 질문을 좀 받았습시다만 도저히 후속일정시간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축산국장께서 주무국장으로서 허신행장관님대신 중요한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개별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김동태(축산국장) : 예 감사합니다. 저희 허신행 장관님도 축산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 4시부터 3청장 단체장회의를 주재하셔야 하기때문에 부득이 돌아가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황우촌 우선생님이 언제까지 자급율이 50%인가를 물어보셨습니다. 97년까지 자급율 50%는 지키겠다. 97년이후 문제는 너무 유동적이기 때

문에 UR협상 타결도 금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어떤 모습으로 타결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50%라는 것은 97년까지 적어도 50% 자급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격안정대는 어떤 방법으로 가격안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정대 하한가격이 150만원, 상한가격이 19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한가격의 의미는 하한가격이 되면 정부가 무제한수매를 해가지고 하한가격이상으로 지지하는 의미가 되고, 190만원이상 상한가격이상이 되면 쇠고기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인데 결국 공급이 부족하니까 쇠고기값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수입육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는 수입육을 국내쇠고기값이 190만원 이상되면 무제한 방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지금 현실여건상 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쇠소 400kg당 236만원인데 그것을 갑자기 190만원대로 무리하게 떨어뜨릴려고 하면 그 자체가 양축심리를 불안하게 하기때문에 서서히 내려가도록 그래서 수입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기획원이 수입육을 배로 늘린다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300톤에서 350톤으로 50톤 정도로 늘어나는데 배로 늘어난다는 식으로 전달이 잘못되어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잘못 전달된 것이 있기 때문에 방출을 안하다가 갑자기 늘린다든지 그런 무절제한 정책은 없고, 가격이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이도록 그런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분이 송아지가격안정대를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축산법에 시안을 넣어가지고 관제부처와 협의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법의 다른 내용때문에 잘 진행이 안되는데 송아지가격안정대라는 개념이 일본 역시 수입자유화에 대비해가지고 나왔지만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이 어떤 식으로 되고 앞으로 97년이후 쇠고기 수입제도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게 그렇게 급하지는 않

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관세부처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91년 수입자유화 하면서 관세율을 91년 70, 60, 50 3년간 관세로 수입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우리도 양허했으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농산물수입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쌀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겠다. 그런데 쇠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쌀처럼 강하게 얘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쌀처럼 주장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소위 Tarification 관세화문제, 국내와 차이를 관세화해가지고 수입이 제한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현실적이지 않느냐. 물론 우리 입장으로는 쿼터를 정해가지고 물량을 조절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국제적 흐름으로 봐가지고 그게 힘들 경우 관세화로, 현재시안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만약 그것도 어려울 경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양허했던 관세를 철회해서 일본과 비슷한 그런 장치를 하는 것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해 당사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적인 신의를 잘 지키면서 또 우리 양축가들의 어려움을 호소도 하며 또 이해도 시키고 해가면서 97년 이후에 큰 충격이 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성주에서 오신분이 송아지생산 규모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규모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 여건상 비육도 규모화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송아지생산은 부업중심으로 하면서 그리고 산간지역의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송아지 번식우를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또 뜻있는 사람이 모여 영농자법인을 만든다든지 하는 겁니다. 한우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우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돈만 할당해놓고 각 지역에서 오는 여러가지 사업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기준을 내리기 보다는 그 여건에 맞는 사업을 올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道하고 좀더 신축성있는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협

의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원서 오신분이 말씀하셨는데 자급사료문제 등 때문에 산지 및 농경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농경지의 경우 사료포로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종자대라든지 또 비료대라든지 또 사이로하는 것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에서 신청오는 대로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고 다만 산지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지문제는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산림청내에 조림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 파주의 농어민 후계자말씀이 가구당 비육이 20~30두규모인데 100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84~85년때문에 송아지 입식 자금지원 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소값이 굉장히 비싼 상태입니다. 조금전 축협 문기한부장이 말한 것처럼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것으로는 지금 송아지산업은 앞으로 1년 또는 1년반후에 출하한다고 생각할 때 손해를 보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전업규모로 가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 전업규모로 가기 위해서 시설도 필요하고 입식자금도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쪽에 지원해 주는게 앞으로 국제경쟁을 염두에 두고도 괜찮느냐! 양축가로 부터 의견도 많이 듣고, 축협의 건의도 받고 해가지고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충남 서천에서 오신분 말씀이 개량단지를 좀 확대해 달라. 지금 현재 전국에 200개소이며 개량단지는 개량을 목표로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비교적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몇군데 가봤지만 송아지를 보조해 주는것으로 인식하고 개량의 참뜻을 잘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개소에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개량단지를 하는가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립종축원을 개량총괄기관으로 정해서 앞으로 한우개량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종축원, 축산시험장, 축협 중앙회, 종축개량협회 등 이런 전문적인 개량기관과 우리가 협의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개량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 것인가는 물론 한우이외에 다른 축종도 있지만 개량사업을 어떤식으로 해야하겠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200개소에서 내실화를 기하면서 확대여부를 결정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한우전문판매점을 대도시 중심으로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도 필요합니다. 군지역, 읍지역에서도 정육점을 건제하기 위해 축협에서 하는 한우종합판매점이 굉장히 큰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 보기도 하는데, 우선은 한우를 팔 장소가 많고 그리고 한우를 속지않고 살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느냐하는 것 때문에 소비자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우선 투입하는 것입니다.

고양시 한우협회의 질문인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저희가 개인에게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인으로 되었을 경우 여러가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우의 경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 정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郡이나 道하고 협의하시고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담보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담보문제는 정말 우리가 지원이 많아질수록 심각한데 축협중앙회나 군지역 축협에서도 이 담보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생각됩니다. 양축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중앙회에서 내려보내준 지침을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는데, 돈을 빌려줄때 메인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용자를 받는 분의 신용이 중요하고, 우리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시설의 진도에 따라서 자금 후치담보도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농어민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연구할 과제입니다. 자금이 많이 나가는데 담보때문에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축협중앙회나

축협에서도 양축가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좀 잘 지원되게 하느냐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저희한테도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부산조합장님이 시설투자는 과잉으로 하고 있는데 입식자금은 안해 주고있다. 여기에 대해 직접생산적인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설투자를 할때는 양축가나 그 단체가 내구년한이라든지 감가상각을 전부 다 고려해서 이것이 시설을 안한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을 해야합니다. 정부가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할것이 아니고 양축가들이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시설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이 시설 안한것보다 좋을 때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절약된다든지, 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든지 또는 사료의 효율이 올라간다든지 여러가지 감안해가지고 시설을 해야지 합니다. 그리고 입식에 대한 지원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 다음에 충남공주에서 오신 분이 개방식 축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녀보니까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협중앙회에서 표준설계를 내려보내는데, 건설부하고 합의하고 있는것은 표준설계의 50%까지는 축조를 고쳐도 인정하는 것으로 그런 단계까지는 건설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완전히 건축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양축가들의 불만 및 불편을 파악해서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충남 당진에서 말씀하신 유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육업자 폭리라든지, 한우둔값판매라든지, 가락동 도매시장에 폐우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가락동에 폐우가 많이 들어오는 지는 모르겠지만 좋은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체등급제를 하면서 판정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판정을 받는 소도 많이 있습니다. 종전하고는 좀 달라졌습시다만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빨리 정착시켜 좋은 값을 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도축장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체등급문제는 종축개량협회에서 축협중앙회로 기구가 넘어오

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축협 지방조직과 협조하여 빨리 도체등급제가 정착되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좌장 : 김국장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소상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더 의문을 가지신 점도 제실줄 압니다만 그점은 나중에 일반토론할 때 좀더 보충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지정토론자 여섯분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편의상 생산현장에 가까이 계신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당국에 계신분들, 마지막으로 대학에 계신분들 이런 순서로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시간제약으로 한분이 약 8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토론을 요약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낙농육우협회 김남용전무님께서 좀 토론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남용(종축개량협회 전무) : 오늘 여기에 생산자들이 여러분 오셨지만은 아마 오늘 여기 네분의 기조발표를 듣고 앞으로 소를 키워야될지 말아야될지 대단히 혼란이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듣고 상당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또 오늘 이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흘리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오늘 국장님이 150~190만원이라고 가격지지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130~1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과거 몇개월전에는 190만원으로 자료가 나왔었는데 어느 사이에 130~150만원에서 150~190만원입니다. 이것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어느사이에 이렇게 정해졌는지? 또 한가지 이것이 앞으로 2000년대를 목표로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사료값, 인건비 등 상대적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소값만은 이렇게 내려도 가능하냐? 이렇게 보았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 촌에서 초가집 보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한우보기가 농촌에서 초가집보기 만큼이나 어렵게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정부의 한우살리기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축가들이 믿었는데 지난 8월 6일날 발표후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양축가들이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난 8월 6일자 발표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우살리기 보다는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냐, 수입쇠고기 취급수수료도 올리주고 포장육은 어떻게 하고 또 덩어리 고기는 어떻게 더 확대하고 하는 모든 것이 수입쇠고기 위주로 판매하는 식이어서 양축가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이어서 앞으로 발표가 양축가 머리에 계속 남아있을 동안은 양축가들이 정부의 발표등을 믿기 힘들것입니다. 그 다음 한우값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한우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양축가, 정부, 유통업체들이 동참해서 한우고기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또 소비자들도 한우고기 우수성을 알아 한우고기를 선호하는데서 오는 가격차등화의 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8월 6일발표를 보았을때 소비자들, 유통업체들로 모두 어리둥절해하고 양축가들도 경악을 금치못했을 것입니다. 이런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생각되고, 그 다음 한우에 대한 정부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한우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같이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한우를 길렀다가는 84~85년 소파동처럼 또 소파동이 오는게 아닌가! 빨리 소를 처분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냐! 하는 염려가 발생합니다. 우선 정부의 의지를 표시해주는게 좋지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송아지가격지지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도 경제기획원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해서 삭제되어 축산법이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때 마침 송아지가격지지대 관계가 거론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부간에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150~190만원 수준이 나오는 것도 송아지가격지지대 제도가 도입된 후에 150~190만원이

지지되는 것으로 전제되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농진흥법도 마찬가지인데, 낙농법도 제정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제정된 것으로해서 차등제등 여러가지가 이루어 졌는데, 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하니깐 거기에 혼란이 옵니다. 송아지 가격지지대가 결정된 다음에 그 가격을 얼마큼 지지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가격지지대가 안된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젖소관계 노폐우값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한우값은 올라갔지만 젖소값은 떨어졌습니다. 한우와 젖소를 통합해서 소값대책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한우값이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낙농가들이 볼때는 수입쇠고기를 무제한 방출한다고 할것 같으면 점점 젖소값은 떨어지고 노폐우를 출하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송아지값도 안나오기 때문입니다. 우유는 남아 돌아가는데 노폐우를 출하안하기 때문에 우유가 더 남아 돌아가게 되고 또 노폐우를 출하안하니깐 새끼를 더 낳게 되고 따라서 여기서 생산되는 송아지도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값대책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어야지 한우만 가지고 따져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경북상주에서 오신 송재원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송재원(경북상주) : 우선 소를 키우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나와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중에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의 대표성이 조금 있으면 좋겠으나 제가 많은 지역을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첫번째 생각되는 것은 전부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소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키우지 않으면 안될 사람들만 전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자기집으로 돌아가면 소를 팔고 앉아서 기다

려야 할 사람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수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이야기의 초점은 앞으로 소값이 떨어질 테니까 입식을 자제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 같습니다. 첫번째 그 문제는 어차피 생산된 송아지는 누구집에 가서도 키워져야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토론의 방향을 보았을 때 모두가 걱정하는 분위기 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소비를 많이 시키느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시간이 많이 할애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얘기는 어떤 통계라든지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소를 키우면서 피부로 느끼는 대로, 내가 눈으로 보고 다니면서 느끼는대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축사의 건축면적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가 도축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시장에 나가보더라도 첫째 팔릴수 있는 노폐우, 그 다음 번식 장애우들 정도 이외에는 암소라고 생긴것은 전부 새끼를 낳기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가격이 좋기 때문에 전부다 생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 숫자는 저절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 중점이 규모의 확대쪽으로 관심들이 몰려 있는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요 요즈음은 소를 30두, 50두이상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저희가 세금을 내야하는 그 제한두수가 한우경우 30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실명제도 되고 했기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국세청과 협조를 하셔서 대폭 확대를 해놓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모확대를 이루는데 첫번째 요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고급육생산이 근래에 와서 큰 이슈거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급육이 현재의 입장에서 잘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해야되는걸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될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첫번째 소를 잘 키워도 마음대로 팔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시장으로 갈려면 서울 가락동밖에 못오는데 여기에 한 차에 소를 8마리를 실어서, 30만원운임을 주고서, 서울까지 오면 얼마가 걸리느냐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한달정도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소를 팔려면 언제 몇두가 나왔나? 값이 언제가 좋으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가면서 거기에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등급제를 하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상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를 잘 키워났으면 크다고 탈을 잡고, 못키워났으면 적다고 탈을 잡는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등급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이런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질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출하하는 생체 kg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아지가격이 싸면은 회전이 빠르게 키우지 누가 지금처럼 600kg키우고 550kg키우겠습니까? 그리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한우가 500kg정도 넘어서면 일당 증체량이라든가 사료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손해를 보면서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어디도 보상을 해주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틀린 말씀인것 같기도 하지만, 이 육질등급판정 보다도 우선 그것을 하기전에 소를 650kg나 700kg키우면 장려금을 주어서라도 일단 크게 키우도록 만드는 것이 고급육을 생산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급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도 키우는 기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키울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세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거세를 하고 제

신 분들이 제신것으로 아는데 팔아먹을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거세를 해서 한번 키워보면 좋겠는데 하고 아주 유명한 유통업체에다 이야기를 하면 선뜻 그것 참 좋으니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가 다 크고 난 다음에 소를 가지고 갈 시기에는 지금 시중에 형성되는 가격을 안줄려고 합니다. 지금의 유통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세를 한다는 것도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소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생체 kg이 보통 500~550kg, 심지어 600kg정도 나가지만, 이것이 급격히 떨어질 줄 압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생산두수가 여기 유인물에 보는 것보다 훨씬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소값은 떨어지리라 봅니다. 지금 소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그 동안 떨어질 듯하면서도 안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올라왔으므로 이제는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아마 소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입식을 자제하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상당히 기대한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소를 앞으로 계속 안키울수는 없을 테니까 키운다고 보았을 때 소생체 kg은 가격과 결과적으로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격낙폭도 빠른 시간내에 큰폭이 떨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축협에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축협을 보고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 축협에서 생축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사육하는 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고맙고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축협이라는 조직에서는 그런 사업보다도 그런 돈을 가지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전문인력을 양성해서라도 소비를 할 수 있는쪽에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축협에서 키울수 있는 그런 소는 우리 생산농가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조합장님이 한 60여분 와 계시지만, 우리 일반사육농가들의 사육형태는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축협보다 더 잘 키울수 있다

고 자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우리 생산자에게 돌려주시고 가급적이면 어렵고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유통쪽에 관심을 가져 줄 때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생산자단체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특별한 준비없이 생각나는대로, 생산현장에서 평소에 생각 했던대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잘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좌장 : 예, 송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양평축협외 박경재조합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경재(양평축협 조합장) : 양평축협조합장 박경재입니다. 먼저 훌륭한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축협조합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나 축협조합장 대표자격으로 얘기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양평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군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시다만 우리 양평지역에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세우를 지금 한 200두를 젊은 사육농가들이 협업체를 꾸며서 최신식 시설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와보신분도 많고 매스컴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가 나온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여러가지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왜 한우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늘 한우값이 올라도 걱정을 하고 내려도 걱정을 하는가? 왜 늘 한우는 가격때문에 늘 불안한 산업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러한 귀중한 자리에 오서가지고 토론회를 마치고 가시면서 후련한 마음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우를 계속 키워야 될런지 아니면 정리해야 될런지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건의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의 입맛이 수입쇠고기보다는 우리 한우고기를 엄청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장차별화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직판장을 내는 거며 또 전문 판매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기왕에 이러한 분위가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의 입맛을 한우고기로 고착화시켜 놓으면 앞으로 수입쇠고기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우전문판매점이라든지 직판장을 낼 때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자금상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부쪽에서 도와주시면 앞으로 한우를 키우는 분들 또 한우를 소비하는 쪽에서 큰 도움이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수입되는 외국산 쇠고기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가 4~5배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안정대를 설정해서 지금 송아지가격은 70~80만원대 또는 큰소는 140~150만원대로 지금 시세보다 한 100만원정도를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 농림수산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도청에서 축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백승훈 축산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백승훈(전북도청 축산과장) : 전북지방에 축산행정을 맡고 있는 축산과장 백승훈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는 시도 과장님들이나 축산행정을 맡은 고명하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더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동안 한우사업에 대하여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더 열심히 실천하라는 뜻으로 알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네분선생님께서 아주 자상히 좋은 내용을 발표해주셔서 제가 감히 여기에서 토론자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평상시 한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몇가지 건의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작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수입쇠고기 소비율이 56.1%인데 금년에는 41.1%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작년도 축된 내용을 보면 국산쇠고기중에서 1월에서 6월까지 한우가 64.4%였는데, 금년에는 72.4% 도살을 하면서도 마리수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중에는 물론 문민정부이후에 외식보다는 가정으로 돌아오셔서 식사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우고기가 젓소고기보다도 또 수입쇠고기보다도 우리 국산고기가 더 많이 소비되었다는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걱정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급하는 거점으로 지금 한우전문점을 더 증설하고, 확대하고, 내실화하고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14에서 94년 내지 97년까지 420개로 매년 100개정도가 늘어나는데 숫자가 적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한우고기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혹시라도 신용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한우고기소비가 더 신장되지 않는 일이 혹시 없을란가 하는게 기우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한우전문판매점 증설은 기존의 전문점을 확대하고 내실화쪽에 더 신경을 쓰면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여기 맥락을 같이해서 좋은 고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할텐데, 그 유통과정에서 한우를 기르는 분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

들이 고기에다가 또는 소에다가 물을 먹인다든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든가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통업자들은 여기에 계신분들이 아니고 아마 이자리에 안계신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단위나 농림수산부만으로 단속이나 정상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가 변화하고 있는 이 때에 이문제가 철저히 뿌리를 내려서 정상적으로 좋은 한우가 유통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를 여기에다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서울도매시장이 3군데 있고, 지방에서 여기에 반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회에 서울도매시장은 완전히 도축기능은 빼고 도매시장기능으로 하고 지방에서는 오히려 도축을 해서 서울로 반입해가지고 도매시장에서 경매처리하는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로 만들어 주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육류등급제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서울은 작년 7월1일 부터 시행했고, 금년 7월1일부터 반출도축장이 시행되고, 내년 7월1일 부터 부산, 95년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이나 예산 문제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한우고기가 고급화되고 또 발전하는데에는 이 등급문제도 일본의 경우를 봐서 상당히 빠른 템포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면, 이 기간을 더 단축해서 내년 7월에 부산이 아니라 전국 시군에 확대를 해주시도록 소급시행하는 방법이 강구되면 한우의 등급제의 조기정착과 한우의 좋은 고기생산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 조직문제에 있어서 한우조합 등 협동조합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금년에 한우종합대책중에서 협업문제 또 한우목장문제 등으로 해서 약 70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폐기물처리관제로 영농조합법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의 기능을 보면 정관

이나 내용이 축산업협동조합과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조합에서 한우문제를 크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안될 경우에는 1단계로 5명이상이면 되니까 영농조합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통해 사육, 출하, 판매까지 다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에 의한 영농조합을 먼저 육성을 하고,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나올 경우는 한우조합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시장문제입니다. 여기에도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92년도에 258개소가 97년도에 128개소로 줄어들게 해서 앞으로 더 정상화시켰다는 내용이신데 저희가 일선에서 가축시장을 생각해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기능이 종전 저희들이 생각했던 가축시장기능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7년에 128개보다도 더 줄여서 권역별 가축시장화 해야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폐쇄되는 가축시장의 재원은 한우라든가 유통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시장은 적극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비육우가 출하되는 시장이 현재는 규모가 크지만 아마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비육우가 가축시장까지는 잘 안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소를 구하는 가축시장으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비육우는 직접 지방도축장에서 도축을 하여 중앙회에서 상장만 하게 된다면 비육우를 제통출하하고, 그리고 생산은 영농조합, 한우조합, 지역조합 아니면 농가가 직접 직출하해가지고 도축해서 등급을 받아 경매시장에 내는 것이니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체계가 정착될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고 내용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를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었던 시기는 85년 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85년도에 한우가 2,253천두, 여기에다 젖소 2,943천두로 되어있고 가임암소가 120만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통계에 의하면 가임우가 1,057천두 그래서 85년도 상황에 비해서 14만두가 지금 부족하지만 현재

의 추세로 봐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저희들이 85년도 수요량을 보면 12만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요추정을 한것을 보면 244천톤 약 11만 4천톤이 차이가 나는데 85년 당시는 수입쇠고기가 없었다. 그러면 현재상황으로 보아서 114천톤은 수입쇠고기를 생각해볼때 오히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우전문점이나 한우소비나 또 한우를 선호하는 소비층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5, 86년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게 83, 84년에 적정한 마리수를 소비시키지 못했던 것이 큰원인이 아닌가 라고 볼적에 지금 부터라도 계속 매년 20만두씩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줄이는 방법,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임암소를 줄이는 그런 대책이 좀 아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장 : 예 백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산행정의 일선에서 여러가지 느끼시는 경험 많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쇠고기 협상의 현장에서 무역마찰의 접점에 서서 대단히 고생을 하시고 또 우리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외무부의 안명수서기관께서 좋은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안명수(외무부 서기관) :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가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인데 외무부는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축산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실분도 있겠는데 사실 이런 심포지움을 열게된 직접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쇠고기시장을 점차 개방해야된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외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무부의 시각을 간략하게나마 표명해 드리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국제화시대 즉 교역량이 증가하고, 직접투자도

증가하고,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점차 광범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일국의 경제활동이 국제무역환경에 직접적인 영향하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통상국에서 통상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UR협상하고, GATT분쟁의 해결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쇠고기분쟁은 우리가 가트에서 처음으로 제소당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트규범하고 UR협상전망 등에 대해서 쇠고기와 관련이 있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초두에 김동태 국장님께서 쇠고기협상경위는 간략하게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반복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도 조금 덧붙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가트에 제소를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4년도에 일반육 쇠고기수입을 금지를 했고 85년도에는 호텔용 쇠고기까지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론 호주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우리정부에 대해서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트에 재소하기 전에 양국간 협의체널을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게 국제무역의 관례입니다. 그때마다 물론, 그때 제가 통상국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당국은 선거후에 보자 국회의원 선거후에 보자 대통령선거후에 보자 이래가지고 87년말까지 온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은 이 문제를 가트를 통해서만 해결하겠다 다른 어떠한 방법은 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네바 대표부에 있을 때가 88년 1월입니다. 그때 미국이 가트에 정식으로 제소를 했는데 그때 미국사람들은 우리들이 양자적인 해결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때까지 한국이 여러번 신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 그쪽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가트이외의 해결은 모색해보지 않겠다고 아예 야멸차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미국이 패널설치를 요구하니깐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패널설치를 요구했는데, 사실 저희 제네바대표부는 물론 농림수산부도 이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우선 전략을 세운게 시간을 끌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나라가

제소를 했는데 패널 3개를 모두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패널이라는 것은 아까 김동태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소위원회 내지는 재판부 보통 3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패널위원들이 선정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제네바대표 직원들 또는 다른나라 대표부 직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패널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에 매우 호의적인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선정되도록 무척 노력했습니다. 패널을 3개 설치하는 복잡성을 우리가 유도해 가지고 사실 패널이 진짜 설치되기까지 저희들이 8개월정도 끈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9년도 5월달에 패널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지요. 그런데 가트에서 패널이 구성되면 일단 그 패널은 무역이 확대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최근일로 관심을 돌리자면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 쇠고기 쿼타협상은 일단 지난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트에 통보했고, 이것은 95년도까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이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는 95년 6월달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다시 지루한 협상을 또 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김국장님께서 주제 발표하실때 UR협상결과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다시말해서 쇠고기 문제는 UR협상과 관련을 갖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UR협상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하면 뭐니뭐니해도 농산물협상이 우리의 첨예한 관심사인데 UR협상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86년 9월달에 개최되었는데 만 7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90년말까지 타결짓는다는 그런 시안으로 UR협상이 출범했는데 현재 3년이 연장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지요. 그렇게 UR협상이 연장된 것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분야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하고 EC간에 특히 수출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타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11월달에 미국하고 EC간에 기본적인 견해차이가 일단 해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UR협상타결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데, 다만 프랑스가 우

니나라 처럼 주요 농산물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수출하는 입장이지요.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입장이지만, 프랑스는 EC회원국이면서도 EC가 미국과 합의한 내용에 매우 불만을 갖고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문제가 현안으로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9월 20일경으로 예상되는 EC확대 이사회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상황을 보면 지난 7월달 동경 G7정상회담에서 시장접근분야에 주요 국가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UR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후에 UR협상은 올 스톱되어 가지고 7월달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G7정상회담에서 합의로 인해 7월중순부터 2주동안 짧게나마 UR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실은 스덜랜드 사무총장이 금년 7월 1일 부터 새로운 가트 사무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젊고 40대 인데 UR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7월말에 협상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달초부터 UR협상이 재개되고 특히 농산물시장 접근협상이 개최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UR협상이 12월 15일 금년말까지 타결이 될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각국의 견해 내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꼭 타결된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어느때 보다도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간단히 이유를 들자면 지금 미국이나 EC, 일본도 마찬가지로 세계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있는데 이 타개책으로 모든 UR협상참가국들이 내년 타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UR농산물 협상이 타결된다고 전제할때 쇠고기에 대해서 우리는 협상결과를 적용하는 쪽으로 정부의 입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관세를 인상해서 수입쇠고기가 우리 국내시장점유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가 있습니다.

쇠고기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우선 만약에 개방이 된다면 어떻게 할것이나 물론 정부는 개방이 최대한 늦추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UR협상이 타결되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를 관세화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UR협상과는 별도로 가트와의 관련성에서 볼때는 우리가 쇄고기시장은 개방하거나 카트규정에 합체시키는 쪽으로 의무 지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트 규정중에 원용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이나 그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아까 질문 하신분중 한분이 말씀하셨지만 20% 관세를 양허했습니다. 79년도 동경라운드때 양허를 해버렸는데, GATT 28조를 보면 관세양허 제약사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까지고 물론 이해관계국에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따르지만 양허 했던 것을 철회해 가지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유화 했을 때, 수입물량이 급속히 늘면 이때를 대비해 GATT 19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도 보상의무가 따르지만 수입물량을 규제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1조2항 C인데 국내생산량을 규제해야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되고, 수입량이 국내시장에서 차지 않는 비율이 전년도 비율을 기준으로 할때 작아져서는 안된다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지만 11조2항 C를 이용해가지고 농산물수입을 규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관세화 이외에 3가지 방안 이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정부로서는 원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까 농림수산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축산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품질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가장 부작용이 없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대 하서현축산대학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서현(강원대 축산대학장) :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의 하서현입니다. 저도 원고를 여기와서 처음보았고,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발

표내용을 들으면서 느낀점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발표해 주신 네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인데, 사실은 한우의 가격이 오르고 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두수를 줄이자고 한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우산업이 지속적 발전을 하는데 소극적인 방법으로 우려를 해가지고 줄여야만 지속적 발전인지? 조금전에 농림수산부장관이 오셨을때 신농정은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질의 경쟁력이 있으면 공격적인 농업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하고도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다고 또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가격, 질이 세계에서 가장 좋아서 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하면 어떻게 많이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터주는것이 지속적인 발전이 아니겠는가 하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세분이 주제발표한 통계처리에 의해서 과거에 이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조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급예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소값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면서 문헌을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가격은 오르는데 쇠고기소비는 줄지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상당히 변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비자 소비행태하고, 현재의 소비자 소비행태하고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소득자들은 쇠고기값이 올라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수입쇠고기를 먹느냐에 대한 답변중 약 43.9%는 한우와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수입쇠고기를 먹는다는 내용의 어떤 사람이 소비행태를 조사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앞으로 우리가 소적으로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에서 벗어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한 논문들이 틀린내용이 아닙니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에 변화를 주는 독립변수는 어려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소비행

태가 이렇게 변한다고 가정하면 사실은 좀더 두수가 증가하더라도 비슷한 가격으로 많이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심포지움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한군데만 쏠점을 맞추려 하지 말고 좀 다양한 논문이 나와도 좋고 또 한데 맞추면 완전한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상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는 또 과거에 온 파동을 겪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줄여야지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이 좋다고 하면 공격적인 농업으로의 방향에 우리가 유통을 개선하고 개방화시대의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유통뿐만 아니라 국제유통, 국제시장까지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가공이라든가 또 일본같은 나라에 수출도 고래해볼만한 방향이 제시되고, 그래서 앞으로 한우산업은 정말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제안이 부분적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전부 줄여야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방향은 간접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육하면 소사육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인가 하는데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한우는 기반확충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물가안정, 수급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랬고, 또 육질평가제도가 없어 유통질서가 혼탁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요를 위축시켰습니다. 둔값판매가 그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92년 7월부터 도체등급제 실시를 하기때문에 조금은 이제 차별화에 의한 한우가 제자리를 찾고 있는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화를 해야하는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고급육개발의 뒷받침이라든가 육질중심의 가격형성이 안되고 있다는점, 우량암소나 송아지 공급기반이 아주 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자금도 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젖소, 한우, 육우의 구별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급육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이제 모델화되는게 바람직하고 또 우량송아지 공급기반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식우에 대한 정치자금이 지원되어야 하고, 송아지생산체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이 조성되어야 되고, 조사료생산기반이라든가 사료공급

기반도 제시되어 생산자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판장이라든가 유통구조는 더 확실해 개발이 되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채등급제도가 조기정착이 되어야겠고, 그에 따라 개량사업 또는 생산기술이 생산자한테까지도 이론에서 실용화될수 있도록 파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제안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신뢰성이 없습니다. 생산자와 정부가 신뢰성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변화의 예시가 있어서, 정부는 생산자를 위하고 생산자는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생산자들을 위해서 늘 헌신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늘 신뢰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책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은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통호박사께서 말씀하신 가격경쟁제고를 위한 다두화도 모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자들이 생산비절감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생산자들이 기술개발 경영적인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두는 어떠하고 100두는 어떠하다라는 모델이 만들어져 생산자들에게 제시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조박사께서 공급구조하고 수요분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급에서도 생산자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생산을 하는데 토지, 노동, 자본 이것이 3요소라고 하지만, 최근에 경영주의 능력이 전체의 25% 정도 차지한다는 문헌이 나왔습니다. 경영자의 의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하는 의사의 실태(형태)분석도 해 보았으면 공급에 더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요분석은 통계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만, 소비형태분석이 뒷받침 되었으면, 줄인다고 하는데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축의 증가는 회의적이라는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차별화를 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고급화를 추진하고, 안정성을 소비자가 추구한다면 한우는 이 정도로 증가해도 큰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부장께서 통계치하고 추정치의 차이를 과수요가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상 모릅니다. 과수요인지 소비행태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더 정확히 하셨으면 줄이는데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앞으로 줄이라고 하면, 생산자들이 줄이는데 석연치 못하게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생산자들에게 줄인다고 하면 왜 줄여야 된다는 뒷받침이 좀더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생산자들은 기꺼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사실은 가시적인 제시만 있으면 생산자들은 정부의 의지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농업도 그렇게 낙관적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할수 있는 계기와 생산자들이 줄어든 늘리든 아주 확실한 뒷받침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고 한우산업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좌장 :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여섯분의 토론자들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한우의 가격이 계속 호조로 이루고 있고, 그리고 생산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이와같은 현상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것이나, 이것이 잘못되면 파동으로 연결될지도 모르는 현상이나, 아니면 고급육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뒷받침 해주는 것이 정책방향으로서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근거가 다르겠지만, 결국 그러한 견해에 따라서 현단계로서는 입식을 자제하고, 어떤의미에서 약간 축소균형을 회복하고, 다음단계로 가는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소비촉진책 그리고 확대발전(수출

을 포함한)과 같은 공격적인 한우산업을 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러한 정책방향의 차이 같은것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주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대하여 냉철한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일보후퇴 이보전진이 더 좋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은거나 이런 대단히 어렵고도 신중한 선택이 뒤따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토론들에 대하여 오늘의 주제발표자들께서 지금까지 꼭 어느분을 지목해서 질문을 하신것은 없지만, 질문이 본인의 발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발표 순서에 따라서 김국장님, 유박사님, 조교수님, 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토론자들의 질의나 의견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먼저하시고, 마지막으로 앞서 장관님하고 질의가 있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니까 일반토론의 기회를 약간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답변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김동태(축산국장) : 토론자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정부에 대한 얘기 같은데, 솔직히 여기 나와서 저도 남한테 나쁜얘기 듣기 보다는 가급적 좋은 소리를 듣고 서로 웃는 얼굴을 보는것이 좋겠습니다만, 그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웃는 얼굴로 소값도 좋으니까 얼마든지 기르십시오. 97년 아직 4년 남았는데 염려할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분도 시원하고 좋겠지만 제가 공무원된 도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도 해보고, 그런 경우에 소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전달해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가격수준이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개방에 대비하여 얼마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난 3월에 소값이 떨어졌을때 저희가 국회에서 180~190만원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더이상 되면 체질강화 하는데 어렵다. 그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양축가들이 정말 사양기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서 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될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양보해 가지고 200만원이라 합시다. 생체 kg당, 5,000원 수준이라 합시다. 현재 생체 kg당 5,900원이데 그러면 소를 잘 못키우는 분들도 소가 괜찮다고 하여 참여할 생각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지금 잘하는 분들이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될 그런 시점인데, 값이 높아서 소를 잘키우지 못하는 분들이 또 참여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앞으로 물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200만원 정도라도, 생체 kg당 5,000원 정도라도 안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러면 200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정책수단이 있느냐!

여러분들 한테 지금도 호소하고 있지만 소값이 떨어질 전망이니, 이미 송아지 난것은 단기비육을 해서 출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의 갑작스런 한우고기선호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소라는 것이 천천히 자라니 이런 비싼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암소를 비육해서라도 빨리 출하하면 소값이 진정이 되겠고, 나중에 소두수도 줄어들고 도움이 되겠는데, 눈앞에 소값이 비싼것을 보면서 누가 서로 먼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소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어야겠는데 그럴때 말로 호소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우육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입육 공급입니다. 그래서 김남용 낙농육우협회 전무계서도 지난 8월 6일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발표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정부에는 물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소값이 더 걱정입니다. 소값이 생체 kg당 5,000원 정도가 되어야겠는데, 소값이 더 올라가고 너도나도 소를 키우려고 하면, 송아지가 시장에 10마리가 나왔는데 15사람이 살려고 하면 송아지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키우려고 하면 송아지 값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송아지 10마리가 나왔는데 5사람이 살려고 하면 송아지 값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낮아진 상태에서 송아지를 키우면 나중에 큰소

값이 떨어져도 버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145만원 송아지를 사가지고 1년 뒤에 200만원 이하로 소값이 떨어졌을때, 또 정부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 안하더라도 우선 본인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전문가의 도리이고 공무원의 도리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오늘 토의 의제를 특별히 제한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것을 각자 나름대로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말씀드릴수 있는 기회를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시기에 맞다해서 저희도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쇠고기 소비라는 것이 과거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연 5~6%로 보는데, 지금 한우의 경우에 금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증가율을 도축중심으로 보면 28~29%입니다. 그런 엄청난 소비증가가 지속되겠느냐? 진정될 것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되풀이 얘기하면 가격수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경쟁이 점점 치열해 가는데, 경쟁력제고를 하고 생산비절감을 하려면 진짜 속된 말로 프로가 소를 키워야 되겠는데, 아마추어가 끼어들면 프로까지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프로와 아마추어가 구별될수 있는 그런 가격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평조합장님이 그럼 150만원까지 앞으로 97년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가느냐, 그것은 1차적으로 소키우는 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사양기술면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량목표, 사료 효율, 질병예방 등을 열심히 하여 일괄사육을 해서 140~150만원대에서 소를 키우는 분도 여러번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송아지를 자기가 길러가지고 400kg 비육하는, 400kg출하는 아니지만 기준을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그런분이 많은데, 그렇지만 대다수 양축가들이 그렇게 못하는데, 무리하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가격 안정대, 송아지가격이 80~100만원정도는 되어야 송아지를 낳는다면, 큰소값이 150~160만원 될려면 경영비를 절감하더라도 400kg 만들때까지 사료비가 70만원정도 들텐데, 어떤분은 80~90만원 얘기할수 있지만, 우리가 정

말 잘해야 되지 때문에, 송아지를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낳을텐데, 80~70만원이 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 그것을 저희가 송아지가격 안정대로 보완해 준다는 겁니다. 도저히 양축가들이 정말 노력해도 더이상 낮출수 없다. 그런것은 세제라든지 관세라든지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그리고 직접 보조하는 송아지 가격안정대라든지, 일본이 수입자유화때 채택했던 그런 방법을 그런 때에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 문제라든지 가격정책 때문에 여러가지 비난을 받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 양축가들한테 우선 정확한 국제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국내 소값이 떨어져도 수입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면에서는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촉진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때 어떻게 신의를 안지켰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제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신의를 잘 지킴으로서 97년에 정말 어려울때 그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실증을 정확히 전달해서, 그때 우리가 관세화할때 좀더 유리한 관세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고기가 우수하다는 것을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여러가지 과학적 요소를 봐서 우수하다는 것을 보도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학적인것 보다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한우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차별화에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요소다. 그런데 그걸 소비자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축도 위생적으로 해야되고, 그 이후단계에서 지금 냉장육 냉동육을 아무도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다같이 노력해서 소비자들한테 냉장육 냉동육 차이도 계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값도 적절해야 되고, 일본 화우에서도 품질차별화로 얼마든지 버틸수 있다고 하던것이 불과 2~3년도 못가서 그게 허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니 우리가 품질고급화에 노력을 해야겠지만, 값도 너무 비싸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현재 소값이 계속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소비자들이 우리 양축가들을 생각해주고 한우를 선호한다고 너무 믿는 경우 소

자들에게 실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자로서 노력은 계속 해야겠습니다. 전복에 백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정말 도체등급도 가능한 빨리 앞당겨야겠는데, 지금도 대부분의 도축장의 주인들이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민시대에 우리가 이해 설득시켜 가면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한우전문판매점 문제도 자꾸 증설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금지원을 했다가 누구라도 잘못유통을 시키고 있다는 고발이 있고, 또 우리가 인지를 하게되면 즉각 자금회수를 하고 간판을 떼버리는 제재조치를 강하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고기공급을 축협이 하게 하는 겁니다. 한우전문판매점 지정을 받은 곳에는 축협이 고기를 공급하게 해서 탄것을 못들여 놓도록 하고 자기가 사더라도 도매시장에 가서 도체등급을 받은것을 쓰게 하는겁니다. 한우전문판매점이라 해서 아무 한우나 파는것이 아니라 도체등급을 받아서 높은 등급을 받은 한우고기를 써야 소비자들한테 계속 신뢰를 높일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우리가 하는겁니다. 여기게 있어서는 우리 양축가들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고발을 하는 고발정신을 우리가 함양해야지 공무원들 몇사람이 그것을 지킬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국민들이 고발정신을 발휘해야 한우차별화가 성공하고 개방시대에 우리한우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분한분 말씀한 것에 대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지만, 주로 부각되는게 가격수준 문제이고, 안정된 가격에서 할수 있다면 300만두건 350만두건 괜찮은데 우리가 수입육도 해결해야 되고, 젓소기반도 최소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노폐우나 숫송아지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 한우두수가 얼마나 적정한가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여러번 토론을 거쳐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문제 또한 현재의 여건으로 도축과정의 위생적인 문제등으로 인해 生牛정도만 가격에 따라서 가능하고, 지금 당장 지육이라든지 부분육으로 수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될 분야입니다.

좌장 : 예 감사합니다. 유철호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철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작년 상반기 그 이전에 소값이 210~220만원정도 되었으면 아마 이런 심포지움이 없었을 겁니다. 당시 축협의 생산비 자료를 보면 두당 200만원 조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라갔다가 금년 3월에 떨어졌다가 또 오르니 이런 공청회가 열린 것이고, 사육자제가 오늘 공청회의 목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가격경쟁력, 고부가가치의 품질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여러가지 애국심도 따라야 겠지만 되도록이면 좋은한우, 그 다음은 외국쇠고기보다는 우리의 것을 애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격을 떨어뜨릴 여지는 있다는 보여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송아지생산의 번식우 사육비, 비육우 사육비를 보면, 가족노동력의 경우 번식우나 송아지의 경우 약 40%이상 많이 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번식우를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다두 사육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계산되고 하는데, 이것을 상당히 줄이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요즘에 와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사람 저사람이 소를 기르려 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시설자금을 주는데 왜 송아지 입식자금을 안주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 정부에서 10년전에 쓰라린 경험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송아지 입식자금을 주면 상당히 과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송아지 두수가 급속이 증가할 겁니다. 10개월후에 어떻게 될것인가를 생각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일단 생산비가 올라가면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산비를 낮춰가고, 가격을 낮춰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안정을 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비용절감을 해서 낮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조석진(영남대 교수)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실상 저는 발표내

용중에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발표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신 가운데, 제가 몇가지 생각이 나는 것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파동이라는 용어를 무심코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파동이라 하느냐 저는 파동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84~87년 까지의 그 당시와 같은 의미에서 파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의 연장선 위에서 생각을 했을때 92년 2/4분기 이후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우육축이라는 것이 하향국면에 진입해 있다 그것이 파동으로 연결이 될지 안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지금이 매우 우려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것은 가임암소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임암소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생산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것 중에 수요측면에서 변화라는 것이 과거에 소비구조와 최근의 소비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의 소두수나 지금의 소두수를 비교해서 과연 앞으로 소파동이 올것이야 안올것이나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과거에 물론 우리가 83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연간 12만톤을 소비했고, 45천톤정도의 물량이 수입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와 지금과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그 당시에 수입된 쇠고기라 하는 것은 거의다 냉동육인 저급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입된 쇠고기라 하는것은 미국에서 사육한 고급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만 되더라도 60% 정도 차지했고, 또 올해 SBS물량이 만톤 가까이 그 자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그것은 냉장육이든 모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가지고 오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상황을 놓고 보았을때, 물론 과거와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의 소값이라는 것은 호황속데 불안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축산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소두수를 줄이고 안줄이는 것은 사육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같이 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이 문제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정해진 경제데이터라는 것은 1회뿐입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2회, 3회 반복해서 실험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내다 보았을때는 이와같은 추세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테는 하나의 정보에 불과할뿐 입니다. 그와같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각개인이 경영주체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소화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축산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높은가격이 아니라 안정된 가격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소값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생산자 입장에서 안정된 가격일 것입니다. 92년도에 축협이 조사한 생산비조사에서 400kg 숫소 생산비가 2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생산비 조사결과를 100%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때 지금의 소값이 높은것이냐 낮은것이냐 하는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격 자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버틸수 있는 힘이 없는한 개방에 대한 대응을 해야됩니다. 그 대응이라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품질격차를 고려한 한우가격과 수입육가격이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송아지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번식농가의 생산비절감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 또한 생산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牛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생산농가는 나름대로 비용절감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그래서 육질중심으로 갈 것이냐 육량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육질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A1내지 A2등급을 50%가까이 달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92년 종축개량협회 통계를 보면 A1등급이 0.4%입니다. 지금 물론

차별화를 해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일본의 예를 말씀 드렸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쇠고기 먹는것은 우리가 쇠고기 소비하는 성향하고 틀리기 때문에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런 일본시장이 거의 잠식당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등급기준으로 - 우리나라와는 등급이 다름- 적어도 A5등급내지 A4등급을 생산하는 화우 육농가는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우를 계속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육질을 월등히 높이거나 가격을 월등히 낮추는 기술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육질중시형 육량중시형으로 분화되어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육질을 좋게 키우기 위해서는 COST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병행하는 방향으로 균형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에 문제입니다. 제가 발표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안정대제도 190만원 상한가격, 150만원 하한 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더라도, 당장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축협이 생산비조사가 220만원 나와있고, 현실적인 소값이 240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180만원, 150만원으로 끌어내린다고 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안정대를 매년 회계년도 시작하기 전까지 개정을 하면서 적정하게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인하를 해 나갈수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것을 180만원 150만원을 끌어 내릴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와같은 차원에서 현재의 가격안정대를 한번쯤 제고해서, 소값을 되도록이면 그 범위내에서 운용하면서 수입육을 풀어 가격을 그안에서 움직여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파동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과거의 추세로 보았을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가격이 하락시에는 번식농가가 손해를 봅니다. 송아지가격이 가장 심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

니다. 요즘같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비육농가가 번식농가에 비해서 이익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일 내년도에 지금같이 가임두수가 늘어나서 가격하락의 조짐이 보인다고 했을때, 지금 소를 키우고 계신분들이 소를 처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농가의 타격이 가장 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경제의 쫓점이 송아지가격을 낮추는 것인데, 송아지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번식농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겁니다. 규모확대는 고사하고 생산기반 자체가 다시 파괴되는 일이 와서는 우리가 소시장을 정작 개방해야 하는 97년에 가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 생산자 여러분이나, 혹은 생산자를 지도하는 생산자 단체 여러분들이 지금의 소값 자체가 과거에는 250만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220~230만두밖에 안되는데 무슨 소값파동(하락)이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시대적인 여러가지가 변한 상황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막상 대해야될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앞두고 똑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중략)

.....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발표내용에서 다른 것은 발표전에 전체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않고 우리 경제의 구제역 안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생산자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여러가지 논문이라든가 발표 인쇄물을 통해서 얘기를 안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실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 드렸을뿐입니다.

좌장 : 문부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부장님이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다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진행이 서투라서 시간이 많

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에 계신분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15분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분만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옥(평창축협 조합장) : 저는 지금 발표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생산자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구나.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책상위에서 공론하시는구나 하는 감이 듭니다. 강원대학교 하교수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85년도에 250만두가 보유됐고 12만톤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말에 230만두에 227천톤이 지난해에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만두에도 육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230만두에 227천톤이 소비 되었는데, 거의 배에대한 소비가 되었는데, 소값파동이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소파동이 온다고하면, 쇠고기를 지난 봄처럼 빨리 육질이 좋다 신토불이다 해서 소비선전을 해서 많이 소비를 시켜야 파동이 안오지. 거기다 수입쇠고기의 고급육을 무제한 방출한다. 또 이익을 18%에서 25%로 해준다. 20일간을 1개월로 연장해준다. 이 수입쇠고기를 가꾸 풀어주면 한우고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한우가 28~30%가 늘어간다는데 이런 좋은 현상이 어디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9일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2두를 도축했습니다. 170두가 출하 되었는데, 140두가 젓소나 교잡우였습니다. 한우가 30두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교잡우는 3,000~3,500원대에 낙찰이 되었는데, 저희는 B1을 받아가지고 생체 kg당 6,7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얼 의미하는고 하면 그동안에 젓소고기나 수입쇠고기를 우리 소비자들은 전혀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농수산부에서 금년부터 104개의 한우전문판매점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서울에다 한우전문판매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우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의 값이 올라가는 것이 두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겁니까? 한우전문판매장이 많이 생기면서 한우에 대한 소비층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냉동육 수입육 교잡우육을 구별 못하다고 한우전문점이 생겨서 사다 먹어보니 정말 맛이 나는 겁니다.

제가 볼때에는 앞으로 한우전문판매점을 절제해야 됩니다. 한우가 어떻습니까? 지금 400kg을 말씀하셨는데, 한우는 20개월이상 비육이 되었을때 고급육이 나옵니다. 550kg 이상이 되었을때 고급육이 나옵니다. 소는 한정이 되어있는데, 판매점은 많아져서 계속 잡아서 팔으니 소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소두수가 늘어가고 소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럴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소가 늘어서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았을때 앞으로는 비육되는 두수를 감안해서 한우전문판매점을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간다면 그 판매점을 만들어 놓고 가계를 비울겁니까? 잘 못하면, 축산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안좋은 한우를 팔아가지고 소비자들이 왜면하는 그런 시기가 올지로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한우파동이 온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이라도 행정당국이나 연구기관에서 소값의 파동이 올 것 같으면 한우 육질이 좋다는걸 자꾸 홍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송파구 마천동에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육은 100g에 1,500원을 받고 안심·등심은 2,200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안심 등심만 찾지 지금도 처지는게 보통육입니다.

일본같은 경우 100g에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소비층들이 어떠한 것을 찾느냐 하면 비싸더라도 질만 좋으면 먹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아까 탁상공론만 한다고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두수를 봐도 현재 소비추세를 봐도 이런 것은 절대 안됩니다. 다만 지금 갑자기 소값이 올라가는 것은 그때문입니다. 한우전문판매장이 많이 생기고, 소비층이 많아지고, 지금 이진물 지하에 있는 판매장은 어떤줄 아십니까? 보통 주중에는 2,700만원 팝니다. 토요일에는 4,000만원 팝니다. 엄청난 소비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때, 지금 농수산부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송아지값이 올라가는 생각만하고, 그 소가 키워졌을때 소값이 안정된다는 생각을 못합니까? 이것이 제가 보

있을때 그동안에 좋은연구를 많이 해오신 여러분들과 저희 생산자의 생각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공감이가치않고 이런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흥분되었습니다. 모든 계수상으로 보나 소비추세로보나 이것은 축소현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더 기르되 바로 이 한우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킬 것이냐 하는 쪽으로 가 주셔야지 어떻게 수입쇠고기의 방출을 더하고, 이익을 더주고, 무제한 방출을 합니까? 제가 봤을때는 우리 한국 농민의 살길은 한우라고 생각합니다. 한우만이 경쟁력이 있고 살수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하시는 분이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많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가 일선 현장에서 농민들과 같이 소를 기르는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엄기호(횡성축협조합장) : 오늘 한우산업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에 여러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이런 심포지움을 할때마다 좀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생산비를 줄이라는 말씀을 학자들이나 정부당국에서 하시는데, 오늘 토론하는 가운데 한분도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기전에 김영삼대통령이 후보로 계실때 사료나 원료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세계적으로 부가가치를 내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에 부가세 10%를 면하면 약 4%정도에 출고가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배합사료라고 쓰고 있는데 일본만해도 단미사료를 쓰고 있으면 16%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를 면하고 단미사료를 이용했을때 출고가격이 20% 정도 떨어지면 약 1/5정도 떨어지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문제는 우리가 15년내지 20년전에 일본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송아지 장려금제도를 젓소든 화우든 다 지원해주고 86년 UR이 대두되면서 일본정부에서는 4%의 축산자금을 주던것을 이제 50%는 축사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50%를 농어촌발전기금에서 3

%로서 12년 거치 18년 상환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8%가 작년부터 정부에서 5%를 주시니 상당히 금리가 떨어졌지만, 먼저 이자를 무는 사람은 8%를 물고 작년이후에 용자를 받은 사람은 5%를 무니 이것도 불공평합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리에 의해 맞춰가지고 5%금리도 물론 정부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주셔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받은 농가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료값이나 금리인하가 되어서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도 일선조합장으로서 근심이 되는것은 정부에서 시설자금이다 낙농이다 양계다 이렇게 해서 약 1억에서 2억가까운 기업농가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이자라는 것이 과연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경영을 하면서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까 어떤분은 담보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농가에 담보를 주었을때 그농가가 불출이 되면 불과 정부의 수수료 0몇%먹고 심해야 1%도 못먹는거 그사람 하나 대출되었을때 불출화되면 100농가에 대출된 금액이 다 돌아잡니다. 또 어느조합이나 지역조합에 보통 평균 자기자본 2~3억에 불과한데 1억짜리 하나 담보없이 대출해 주었을때, 그사람이 불출화 되면 그 조합은 파산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국제심포지움이 있을때에 거기서 충격적인 것을 들었는데, 중국 연변에서 오신 교수님이 그쪽 길림성의 소가 우리 한우와 같다고 했습니다. 숫놈은 950~1,000kg정도 나가고 암놈은 650~700kg이 나가는 상당히 종축개량이 잘 되었다고 할까! 북쪽이래서 잘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큰소들이 400kg기준으로 했을때 우리나라 돈으로 22만원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호주 등에서 들어오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정말 일본도 만주에서 소를 사다가 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우고기가 만주에서 이것들이 들어올때 정말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되고, 저자신도 지금 80만원대니까 16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교수말에 의하면 400kg이 22만원대라고 하면 그것은 경쟁이라 할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한우를 정말로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면 정부가 의지

를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러한 소 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송산면 한우회장) :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게 다 옳으신 말씀인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를 아무나 기른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는 돈이 없는 사람은 못 합니다.

소는 20개월이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료값하고 돈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농협에서 50일 이상이면 12%내지 14%의 이자가 붙습니다. 또 축협에서는 20일밖에 주지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를 길러 가지고 여기오신 분들은 아마도 대다수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기를레야 기를 염두가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르냐 이얘기 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를려면 얼마나 담보를 제출해야 됩니까? 담보가 없는데 당장 소사료를 주는줄 아십니까? 안줍니다.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자들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심포지움을 해가지고 가격이 하락 한다는 것을 대서특필 한다면 내일부터 소값이 막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우회는 5마리이상 100마리이하의 생산자로 되어있는 생산자단체입니다. 한우고기의 값을 조장하는 것은 대기업들 입니다. 아까 어느분이 말씀하셨는데, 축협에서 소를 기른다고 합니다. 또 사료장사를 하시는 대기업들 전부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장관께서도 하셨는데, 농촌을 보고 신바람나게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신바람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곤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활력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경기도 양주) : 제가 여지껏 일개 사양가로서 느낀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까지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시장경제의 원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가격이 오른다 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양가의 입장에서는 출하체중을 더 늘려서 10마리가 500kg이 되는것을 550kg으로 늘려서 한마리가 더 출하되는 식으로 해서 소비가 더 확충될수 있도록 해야되고, 또 하락시에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생체중이 낮은 상태에서 출하하게 됩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쿼터량을 소진해야 된다고 했지만, 쿼터량내에서만 일년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무제한 방출해 가지고 쿼터량보다 더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협의한 쿼터량만큼 소비가 되는것은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쿼터량을 무시하고 무제한 방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무제한 방출해 가지고 쿼터량 보다 더 들어 왔을때에는 다음 협상에서 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나아가 우리 양축가는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시설자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거의다 60평이 신고 기준이니, 거의다 60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축사를 60평으로 했을 경우, 앞으로 전업농 아니면 기업농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 60평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120평 정도를 신고면적으로 확충해서 또한 자동화시설도 할수 있고, 기계화가 될수 있는 축사면적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제가 초창기 소를 기를때에는 도매시장에다 출하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정육점을 상대로 했었는데, 정육점에서는 목측으로 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실제 무게와 목측으로 거래하는 무게와 차이가 나는것 같아 저울을 구입했습니다. 저울을 구입해서 정육점에 출하하는 것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과 어떤 가격차이가 나는가 하고 저울에 체중을 제어보고 도매시장에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게 되면 강제급수 문제도 있고해서 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에는 수의사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사가

그 소에 대해 판별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만 도축을 하게 되는데, 괜히 선량한 양축가만 하루 계류해 가지고 그만큼 말려서 잡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거 저울에 올려놓고 출하해 보고, 정육점에 직판해 보니까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좋은 한우의 거래가 안되고 있는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통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매시장만 활성화해서 양축가가 도움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매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중간마진이 없어지게 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매시장에서는 도축세등 일련의 제반비용이 많기때문에 생산자와 판매자간에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유통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장 :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꼭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분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협업체 농민 : 이번에 농약으로 문제가 된 수입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약검출이 안되었다고 해서 사료용으로 축협이 인수를 한다고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만약 제가 보기에는 이자리에 기자들도 있을텐데, 말많은 언론에서 그것을 보도했다고 치면, 소비자들 누가 국내산쇠고기를 먹겠습니까? 결국에 팔리는 것은 수입쇠고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값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쇠고기 제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림수산부가 수입쇠고기를 팔기위한 전략이 아닌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축협에서 수입밀을 인수하게 된다면, 저는 발벗고 나서서 축협사료 불매운동을 벌이겠습니다.

김종범(남양주 협업체) : 여지껏 하신 말씀들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축농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들 기대하고 오셨을 것입니

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비육우보다는 번식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한것에 제일 타격을 받은건 저희같은 곳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려놓고 있는데, 아직 계류중인 것 같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내려와야 저희가 일을 하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확인해 주시고, 송아지 값이 80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값이 낮아지려면 경영비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번식우는 조사료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확보하려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전에 산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재 유희농지가 많이 있고 저희가 임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장비가 문제시 됩니다. 장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묘를 살릴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업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엔실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야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우 직판장만 운운하고 계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한우 직판장만해서 지난번 프레스센터에서 있는 한우살리기방안 세미나에서, 안동 황우촌에서 나오신 우재석씨가 안동 황우촌에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나 하시면 한우직판장보다는 대중음식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협업단체나 목장이 이런것에 대하여 대중음식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좌장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견, 정책건의 그리고 질의를 들었습니다. 대체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정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진행 안내를 하고 마지막으로 축산국장께서 정책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모임을 마쳤으면 합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조합장님께서 일선에 양축농가하고 책상물림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결같이 전부다 입식을 자제하라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현장하고 통계라든지 국제적 사정 등을 보고있는 분들하고 차

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저희 연구원이 주관한 것은 전부 입을 모아서 입식을 자제하라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축산국장님은 누구보다도 양축농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있는 분이고, 또 나름대로 욕을 먹더라도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되겠다. 얼마 있으면 다 들통이 날테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유철호박사나 조석진교수는 국내 축산학자들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분들인 만큼 밤낮 축산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고, 또한 조박사께서 일본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우리 한테는 상당한 타산지석이 되는 경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초에는 별영향이 없겠지 했는데 낙농가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 처음에는 외식산업 그리고 가공원료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가정용까지도 상당히 침투를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질만 가지고는 수입육을 과연 막을수 있느냐에 대해서 최근 일본에서는 회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가지 연구나 조사과정, 경험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한우산업을 위축시키려고 이런 모임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국장님 시책에 관련된 문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태(축산국장) : 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창조합장님 말씀중에 평창이 한우 적지이고 여러가지로 한우를 잘 기르고 또 많이 사육하고 있으니 좋은 말씀인데, 85년도에 250만두 12만톤 소비, 금년에는 6월에 220만두인데, 지금 추세로 연말에는 250만두 가까이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비는 작년에 227,000톤인데 상반기에 약 4%가 줄어가지고 하반기에 조금은 회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크게는 회복이 안될 것이라 해서 224,000톤이라 했을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보고, 수입육은 저희가 99,000톤이니 그렇게 하더라도 소값이 떨어지겠느냐. 저희가 전에 누누히 이야기를 하였지만, 금년에 소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분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라 보고, 다만 지금 소마리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내년 이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83·84년에 소마리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1년사이에 40만두씩 늘어난게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증가율이 그보다도 더 빠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보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안 맞을수도 있겠지만 여러사람이 공통된게 지금 현재 마리수가 증가되는 것을보면, 소비가 증가된다고 해도 가격이 상당히 큰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는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97년도에는 어떻게 무역제도가 달라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비해 체질강화를 해야되겠는데, 소값이 비싸면 노력하지 않아도 수지가 맞는데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 지금 수준같으면, 생체 kg당 5,000원 수준 정도에서 안정이되면 좋겠다. 안정이 되어야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이것이 들쭉날쭉해 버리면 어떻게 양측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설투자를 하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안정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정시킬 수단이 무엇이나 쇠고기를 많이 먹겠다고 쇠고기 값이 올라가는데, 그럼 쇠고기 값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소값이 어느정도 안정된다면 무리해서 금년에는 99,000톤 정도만 소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무제한 방출을 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만여톤 수입해 팔것도 아니고, 적어도 99,000톤 내외 수준으로 저희가 하겠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소값이 상체 kg당 5,000원 정도로 안정된 수준으로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그리하여 지속이 된다면 지금은 떨어져도 내년에 완화돼서 지속이 되면 소키우는 분들이 오히려 안심하고 시설투자도 하고 체질강화를 하겠는데, 지금 소값이 들쭉날쭉 하다보니 이게 불안한 것이고 정부가 소값을 어떻게 안정 시키겠습니까? 생산자·생산단체·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것은 생산자단체들을 어떻게 하라고 지도하고 현재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장경제를 말씀하신분이 계셨는데 시장경제의 원리로 공급이 부족하니 우리가 다소 가격수준의 견해가 다르다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측가들이 많이 받으면 저희 배가 아프겠습니까? 많이 받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좋은 일인데 얼마후에 불행해진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지 양측가들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을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만큼 육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노력을 안했습니다. 정부도 안했고 지원도 덜했고, 일본은 양측가·농협·정부 삼자가 피나는 노력을 했어도 지금 수입육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하고 세상에 그렇게 쉬운일이 있다면 누가 걱정을 하고 세상을 어렵게 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양측가·정부·연구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난국을 해체 나가느냐 난국이라는 것이 국내시장만 가지고는 난국이 있을턱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입시장 자체의 상황이 달라지고, 그런 상황을 다시 옛날로 되돌릴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즐겁게 덕담만하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황성조합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일본만큼 지원을 못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그동안 좋지 못했고 지금 다급해지니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동안에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이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이 아닙니까? 국방비가 GNP의 1%도 안됩니다. 우리는 경제력도 좋지 않으면서 국방비를 연간 6~7%를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져서 많이 다른쪽에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체제와 가격수준이 일본하고 저희가 다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본만큼 지원을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그만큼 힘이 없는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하는데 지금도 이런 노력으로 보조하는 것은 괜찮은데, 융자는 시설규모가 커지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합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

차라든지, 아니면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주 소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중국에 가 보았고, 중국에 어떤 조선족 시장님이 소를 팔수 있는 길이 없냐하고 제방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제역 문제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OIE(국제수역사무국)가 파리에 본부가 있지만, 지역을 분할해서 동북 삼성은 전혀 구색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경우 상당히 걱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중국해 안쪽이 지금 특구라든지 여러가지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 우리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연경제성장율이 작년에는 13%였는데 경제를 진전시키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안쪽이 경제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한 인건비도 빠르게 올라가서 축산기반이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볼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가격과 비교해 대책이 여러가지 어려운점도 있는데, 그것을 가능한대로 우리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을 통해가지고 구제역 규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타문제는 어쨌든 99,000톤 범위내로 금년에는 약속만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쇠고기와 관련해 수입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좀 호소를 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사부도 아니고 검역소 직원도 아니지만, 어쨌든 2월에 미국산 밀이 들어오다가 보사부가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잔류농약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거기에 한·미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됐고, 그래서 가지고 온 사람들은 검역을 잘못된 것이고 의심하면서 같은 루트(root)에서 나온것중 일본에 간것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서 밀 수입업자가 행정수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KIST에 샘플을 떼서 의뢰를 했습니다. 검역소에서 시끄러워 지니 다시 검사를 했는데, 최근 7월에 검사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한 것을 보면, 검역소에서는 불검출로 나와있고, 재판부에서 샘플을 떼서 KIST에 검사한 것은 시료가 21가지정도 되는데, 그중 7개가 사람이 먹어도 되는 기준치 이하이고 나머지는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면 사람이 먹게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 단체들이 또는 시민들이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건강을 지켜달라고 주문을 해왔습니다. 보사부에서 잘못했던 잘못했던간에 나왔다고 판정을 했는데, 그것은 번복을 할 경우에 앞으로 검역문제에 있어 다른나라에서 그런 유사한 것을 가지고 주장할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없지만, 한번 사람이 안먹는다고 했으니 못먹는다 그러면 11,000톤정도 되는데, 이미 대금은 미국에 지불됐고, 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고 바다에 쏟아 버려지거나 땅에 파묻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정부내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사료로 쓰는 방법도 있고, 공업용 폴로 쓰는 방법도 있어서 저희도 사료협회·축협중앙회와 상의를 해보았고, 지금 현재 KIST에 재판부가 시료를 떠서 준것도 지금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수준이고, 그리고 보사부에서 불검출로 나와있고, 지금 검역강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사람에게 못먹이는 상황인데 사료로 쓰는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문제된 일이니 혈값에 사고 그리고 실제 사료로 쓸수 있는 것인지 검정을 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쓰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 기관에서 샘플을 떠보니 사람 먹을려고 들어온 것이어서 흙도 안묻었고 정말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었던 자원을, 지금 중서부에 홍수가 나서 요즘은 좀 주춤하지만 곡류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논의 한 일이 있고, 그런데 소비자 모임이라든지 여러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겁이나는 못쓰는 겁니다. 못쓰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오후에도 카톨릭농민회라든지 또 축종별 단체라든지 이것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할려고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건데 또 상태가 그렇게 좋은건데, 대금지불이 다 된것을 그냥 버린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거냐. 또한 보사부를 그렇게 코너에 몰아서 사람먹게 하지 왜 가축에 먹이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검역자체가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계속해서 몰아부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왕 얘기가 나온김에 제가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

하여 우리가 잘못을 한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심판을 각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1,000톤의 밀을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것인데 바다에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기회를 얻어서 수입 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 협업체에서 번식우 사업계획서를 내셨다는데, 지금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축정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관적으로 사업계획을 보니 단순히 앞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조사료 기반이라든지 또는 축사시설을 현대화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한다든지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건물이 늘어나고 소두수가 늘어날 그런 사업계획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축협과 협조하여 전부 다는 못가보고 몇군데 현지조사를 다녀와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확보를 해서 번식우를 잘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협업체가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직판문제는 미국의 경우 도매시장을 직거래를 하는데 그게 여러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영농규모가 크고 패킹하우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양에서 살다가 이민을 가 캘리포니아에서 채소농사를 지어서 파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은 우리 도매시장 제도가, 미국에서는 사는 사람이 값을 부르기 때문에, 차라리 좋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유통구조와 사회적인 생산규모라든지 그런것에 따라서 일본, 대만, 우리나라처럼 적게 생산하는 그런 쪽에서는 도매시장에 공정거래기구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드렸는데, 저희 축산국에서 매주 양축가·공무원·축협 등 여러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를 잘키우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모셔다가 저희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의 관계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일선 양축현장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제가 경험이 많지 않지만 주무국장께서 이렇게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답변하고, 호소도 하고, 이러한 진지한 자세·태도에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6시 40분 원래 종료시간보다 1시간 20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간 40분 이라는 굉장히 긴 대하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의견차이, 견해차이 전망의 차이는 많았지만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은 하나도 예외없이 모두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한우를 지키고, 한우산업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가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입장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지한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견해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누가 옳은 것이냐 하는것도 시간이 지나가지 않으면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분석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것이 앞으로 영농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진지하게 참여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 개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영일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한우 사육농가 여러분들, 관계기관 여러 전문가님들 그리고 농림수산부와 외무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 당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한우산업을 어떻게 지키고, 이것을 어떻게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와 같은 중대한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농업은 지금 커다란 국제화·개방화라고 하는 세계 대세의 흐름 속에서 쇄고기협상을 통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입쿼터를 늘려간다는 그러한 선에서 양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교섭도 이달말부터 다시 새로이 시동되어 어쩌면 연말에 타결이 가능할 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한 여건하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한우가 살아 남는 길 또는 한우산업의 발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한편 질의 향상을 통해서 수입육과 질적인 경쟁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커다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최근의 가격이 대단히 호조를 보이고, 또한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요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호황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상당한 우려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쓰라렸던 파동이 재현될 우려조차 없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장단기 여러가지 측면에 걸쳐서 우리 생산농가, 관련단체, 지원기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연구자를 비롯한 사회전문가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한우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놓여 있는 여건과 상황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방향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계 전문가, 정부당국 그리고 생산자단체인 축협외 분석 등 이와 같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여론 수렴을 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임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한 그러한 정책의 개발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한우육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이 조화될 수 있는 생산자들의 자세, 이런 것을 갖는데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의 애를 써 주신 농림수산부 당국자, 축협 관계자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여러분들에게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 8. 15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鄭 英 一

농림수산부 장관 격려사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해 주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송찬원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국 60개 조합에서 한우를 주로 다루시는 조합장님과 그 지역에 다두사육을 하시는 양축농가 대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뵈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심포지움에 직접 발표를 해 주시고 좌장을 봐 주시는 정영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님과 교수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충분한 토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1985년을 전후로 한 한우 「소값파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8년전 악몽과 같이 전국의 축산업을 진동시켰던 그러한 우리 경험이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또 그와 같은 파동이 올지도 모르는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먼저 홍수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시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된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우 「소값파동」을 전후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또 예고도 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두수를 보니 벌써 한우만 해도 220만두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가임암소가 100만두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번식율을 80%만 잡아도 연간 80만두의 송아지가 이 땅에 쏟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임암소가 100만두를 넘어섰다 하는 것은, 언제 그와 같은 파동을 몰고 올지 모르는 불안이 지금 도사

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최근에 또 이상한 것은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의 방출에도 불구하고 한우값이 올라가는 이 현상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한·미, 한·호주, 한·뉴질랜드 등 쇠고기를 수출하는 주요국가의 협상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수입을 하도록 타결을 본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파동이 왔을 때에 우리가 미리 그 한을 잡아 놓기는 했습니다만, 파동이 왔을 때에 80년대 중후반에 우리가 단행했던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인 무역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수급상황을 잘 지켜 나가면서 한우사육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고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짜아 내시면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해 올리고 싶은 것은, 다가오는 97년까지는 저희들이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안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상의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일년, 이년이 아니라 한 달, 두달이 달라지게 변하고 있어서 「유비무한」을 우리가 미리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우리가 방어보다는 좀 공격을 할 수 있는, 한수 더 높여서 국내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수한 한우고기를 가지고 해외시장까지 나가보자는 이런 전진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우를 점검을 해 보니 분명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쇠고기보다도 우리 한우고기가 품질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고급육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일본의 화우 품질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소보다도 떨어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라면 왜 우리가 세계 고급육시장에 도전 못할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품질이 우수한 한우를 비육해서 유통과정을 근대화시켜 가지고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에서 오신 조합장님들 그리고 다두사육을 해보신 양축농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떨어뜨리지 말자. 낮게 평가하지 말자.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도전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방어뿐만 아니고 공격을 해 볼 수 있는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을 할 각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농정하에 하나의 대안으로써 품목별로 어떤 전문조직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거의 완벽하게 빠른 시간내에 잘해 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가지 증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이 자기에게 딱 하나의 책임만 부여해 주고, 분명히 할 것만 제시해 지원만 잘 해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잘 해낼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한우를 살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도전해 보자 하는 목표를 세워 놓고, 200만 한우를 어떻게 하면 고품질로 하고 유통을 근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포장·저장·가공을 잘해서 해외시장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몇년도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1~2년내에 나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다두사육을 하는 금산인삼우 또는 강진맥우 개군한우 등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테를 보면, 기가 막힌 소들을 생산해서 자기가 직접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경영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져 “이 진짜 한우고기를 먹어보자”하는 얘기가 온 소비자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비싸도 좋다는 것입니다. 맛있고 향기있고 좋다는 것이 국민간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포착 못하고, 왜 이런 가능성을 발전 못시키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

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국의 한우를 다루시는 60개 조합장님이 오셨지만, 기존의 축협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축협에 대한 마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축협에 대한 어떤 경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조합의 힘을 한우하나 살리는 쪽에다 집중을 하셔서 다두사육하는 사람들을 조직하시고, 거기에서 그 길을 터 주시고 한우판매점을 만드셔서 축협중앙회의 많은 인적자원과 정부의 충분한 자금을 지원 받아서 여러분이 나서시면 됩니다. 이걸 꼭 흑이다. 백이다. 전문조합이다. 지역조합이다. 이렇게 서로 가름질하지 마시고 시대가 여건에 맞춰서 여러분이 직접 나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우를 살리고 그 다음에 돼지를 살리고, 젖소를 살리고 닭을 살리고, 이렇게 품목별로 하나하나 전문화해 나간다고 하면, 일선조합이나 양축농가나 축협중앙회나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도 이런 이해관계를 전부 벗어나 우리 600만 농어민을 살려, 이 개방화시대에 잘 살아보자 하는 각오로 사심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가지 명제인 과잉과소·생산과동을 우리가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한차원 더 높여 전문생산 유통체제로 발전시켜서 국내시장의 확보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학자로 있을 때에는 제가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가는 곳마다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5분쯤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머지 시간동안 듣도록 할테니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3. 8. 25

農林水産部長官 許 信 行

참석자 명단

좌장 : 정영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주제 발표자 : 김동태(농림수산부 축산국장)

유철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실장)

조석진(영남대학교 교수)

문기한(축협중앙회 조사부장)

토론자 : 하서현(강원대 축산대학장)

안명수(외무부 통상기구과 서기관)

김남용(낙농육우협회 전무)

박경재(양평조합장)

백승훈(전라북도 축산과장)

송재원(한우농가 경북 상주)

빈

면

연구자료 D85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 강향에 대한 심포지움 결과보고서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 방향

찍은날 1993. 10 펴낸날 1993. 10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 5-10호 (1979. 5. 25)

찍은곳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 737-210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